

남편 부모 및 부인 부모와의 지원 양상의 특징과 기혼 자녀의 결혼 생활 만족도와의 관계 -EASS*2006 데이터를 이용한 한일 비교-

Intergenerational support and marital satisfaction in Korea and Japan:
A comparative study using the EASS2006

히로사키대학(弘前大学) 교육학부
준 교수 이수진**

Faculty of Education, University of Hirosaki
Associate Professor Lee, Su-Jin

〈목 차〉

- | | |
|--------------------|------------|
| I. 서론 | IV. 연구 결과 |
| II. 선행 연구 | V. 요약 및 결론 |
| III. 연구 문제 및 연구 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 of intergenerational support provided by husbands and wives to their parents and vice versa on marital satisfaction of grown-up children. The study consisted of 229 married men and 319 married women in Korea and 220 married men and 249 married women in Japan. EASS2006 data were used in the analysis. Among Korean males, scores for marital satisfaction were highest among those who frequently offered financial support to their own parents and their spouse's parents. Among Korean females, scores for marital satisfaction were highest among those who offered daily support to their own parents. Among males and females, scores for marital satisfaction were highest among those who frequently received financial support from the husband's parents. In the case of Japanese males, scores for marital satisfaction were highest among those who no provided daily support to their own parents and to their spouse's parents.

* East Asian Socila Survey (EASS) is based on Chinese General Social Survey (CGSS), Japanese General Social Survey (JESS), Korean General Social Survey (KGSS), and Taiwan Social Change Survey (TSCS), and distributed by the EASSDA.

** 주저자, 교신저자: 이수진(leesujin@hirosaki-u.ac.jp)

Key Words : 기혼 자녀의 부모에 대한 지원(support provided by grown-up children to parents), 부모의 기혼 자녀에 대한 지원(support provided by parents to grown-up children), 기혼 자녀의 결혼 생활 만족도(marital satisfaction of grown-up children), 한일 비교 연구(a comparative study in Korea and Japan)

I. 서론

인구 통계에 따르면 2016년을 기준으로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남성이 79.3세, 여성이 85.4세(통계청 보도 자료, 2017), 일본인의 평균수명은 남성이 81.0세, 여성이 87.1세(厚生労働省, 2017)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70년대와 비교해서 10년 이상 길어진 것이다. 인구를 구성하는 연령 스펙트럼의 확대 및 자녀수 감소 등의 요인은 부모와 자녀의 세대 간 관계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Bengtson, 2001).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기혼 자녀와 부모 간의 지원 양상의 특징과 기혼 자녀의 결혼 생활 만족도와와의 관계에 주목하였다. 부모와 자녀 간의 지원, 그중에서도 기혼 자녀의 부모에 대한 지원은 기혼 부부가 행하는 의사 결정의 결과물이라는 점(한경혜 · 김상욱, 2010)에서 부모에 대한 지원 양상이 기혼 자녀의 결혼 생활 만족도의 중요한 예측 요소라는 점에 착안하였다.

한국과 일본 양국은 최근 공통적으로 평균수명 및 세대 간 공존 기간의 연장 등으로 인해 부모와 자녀 간 부양 및 지원 양상의 다양화를 경험하고 있다. 다양화 양상의 첫 번째는 자녀의 부모 부양 규범의 완화를 들 수 있다. 지금까지의 세대 간 지원에 관한 선행 연구에서는 자녀는 지원을 제공하는 측으로, 부모는 지원을 받는 측으로 보았다(Lee, Netzer & Coward, 1995; Yang, 1996; 한경혜 · 홍진국, 2000; 윤숙현, 2003; 임효연, 2009; 김정석 · 최형주, 2011). 그러나 자녀가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고 하는 규범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자녀의 일방적인 지원은 부모의 생활 만족도에 부의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지적되었다(김정석 · 김익기, 2000). 또한 부모가 자녀에게 자원을 제공하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부모의 생활 만족도가 높다는 결과도 얻어졌다(고선강, 2014).

두 번째는 부모의 자녀에 대한 지원의 확대를 들 수 있다. 실제로 건강하고 경제력이 있는 부모는 자녀에 대해 경제적 지원에 적극적이며 자녀 역시 성인이 된 후 혹은 결혼한 후에도 부모로부터 경제 자원 및 돌봄 노동을 제공받는 사례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宮本 · 岩上 · 山田, 1997). 서울시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서울 지역의 60세 이상 부모와 동거하는 성인자녀 중 절반가량이 부모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받는 이른바 ‘갱거루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녀와 동거하는 60세 이상 부모 가운데 46.5%가 ‘경제적 이유 등으로 자녀의 독립생활이 불가능해서’ 혹은 ‘손자녀 양육과 자녀의 가사 지원을 위해서’ 등 자녀 부양을 위해 동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파이낸셜뉴스, 2014년 8월 22일자). 20-59세의 기혼 남녀를 대상으로 한 일본의 조사에서도 약 60%가 지난 1년 동안 본인 혹은 배우자의 부모로부터 경제적으로 지원을 받았다고 응답하였다(毎日新聞, 2008년 3월 18일자).

세 번째로는 부모 자녀 간 지원 관계에서 남편 부모뿐만 아니라 부인 부모도 당사자가 된 점을 들 수 있다. 이전에는 경제적 지원, 가사 및 돌봄 지원을 받는 대상이 주로 남편의 부모이고, 지원을 제공하는 주체는 며느리라는 점에 중점을 둔 연구가 다수 행해졌다(한은주 · 김태현, 1994; 한경혜 · 이정화, 2000; 張英恩 외, 2009). 그런데 최근에는 결혼한 딸과 그 부모와의 관계가 밀접해져 부인 부모에 대한 지원이 늘어나고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施利平, 2008). 부모 자녀 간 지원이 형식과 의무보다

는 현실과 생활의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이루어지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한경혜·윤성은, 2004). 즉 육아 지원을 받는 경우에도 주요한 담당은 부인의 부모인 경우가 많은데 기혼 자녀가 1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 중이거나 부인이 취업하고 있을 때, 부인 부모와의 근거리 거주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이는 성인 자녀의 요구가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田淵, 2011; 千年, 2013).

한국과 일본에서 행해진 세대 간 지원에 관한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기혼 자녀는 남편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고 가사 및 육아 등의 지원은 부인 부모로부터 받는 등 남편 부모와 부인 부모와의 관계가 비대칭적임을 지적하였다(한경혜·윤성은, 2004; 김주희, 2009; 田淵, 2011; 이주리, 2012; 千年, 2013).

결혼을 가족과 가족의 결합으로 여기는 한국과 일본의 문화에서는 배우자 가족과의 관계 또한 주목할 만한 요인이다. 이러한 배경을 감안하면 남편 부모와 부인 부모와의 세대 간 지원은 기혼 자녀의 남편과 부인의 결혼 생활 만족도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 및 맞벌이 부부의 증가 등으로 출산과 육아에서 부인 부모와의 교류가 늘면서 과거 며느리와 남편 부모 사이에 갈등이 있었던 것처럼 남편과 부인 부모와의 갈등도 빈번하게 표출되고 있다. 결혼생활에서 배우자 가족과의 관계가 개인의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이 이전보다 더 복잡하고 역동적일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는 이주리(2012)의 연구는 이런 점을 잘 드러낸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기혼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적 특성을 경제적 지원, 가사 및 돌봄 지원의 측면에서 비교하고자 한다. 또한, 기혼 자녀와 부모 간 지원을 중심으로 한 배우자 가족과의 관계 맺음이 기혼 자녀의 결혼 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양국의 유사점 및 차이점을 도출해 내하고자 한다. 가족 가치관의 측면에서 완만한 변화를 경험한 일본과 급격한 변화를 겪은

한국의 비교는 오늘날의 한국 가족 및 고령자 복지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데 시사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II. 선행 연구

1. 부모 자녀 간 지원 양상-기혼 자녀와 남편 부모 및 부인 부모와의 지원

한국과 일본을 대상으로 한 연구뿐만 아니라 각국의 연구 결과는 공통적으로 기혼 자녀로부터의 경제적 지원은 남편 부모에게, 부모로부터의 경제적 지원 및 일상적 지원은 부인 부모로부터 받는 경향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Lee, Spitze & Logan, 2003; 한경혜·윤성은, 2004; Sarkisian & Gerstel, 2004; 岩井·保田, 2008; Chesley & Poppie, 2009; 김주희, 2009; 田淵, 2011; 李秀眞, 2012; 이주리, 2012; 千年, 2013).

김주희(2009)는 결혼 초기의 딸의 입장을 조사한 것인데 남편 부모에게 정기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경우가 지원을 받는 경우보다 월등히 많으며 남편 부모를 지원하는 경우가 자신의 부모에게 지원하는 경우보다 훨씬 많음을 밝혀냈다. 또한 부인 부모에게 지원을 제공하는 경우는 부인이 정규직으로 취업한 사례들임도 밝혀냈다. 나아가 남편 부모를 생략하고 부인 부모에게만 지원을 제공하는 사례는 없다고 하였다. 白波瀨(2005)는 여성이 풀타임으로 일을 할 경우 무직인 여성에 비해서 자신의 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하기 쉽다는 결과를 얻었다. 또한 대만의 연구에서도 본인이 풀타임으로 일할 때 기혼 여성은 자신의 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크게 증가 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Lin et al., 2003).

한편, 윤원아(2010)에 의하면 부부의 부모 부양 결정은 부부간의 교섭력 보다는 양쪽 부모의 상대

적 건강 상태, 재정 상태, 간호를 위한 대체 인적 자원 확보 여부 등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양가 부모로부터 동시에 부양 요구가 있을 때는 같은 조건이라면 부인 부모의 부양에 더욱 적극적으로 반응한다고 하였다. 한편, 부모로부터 결혼 비용 혹은 신혼집 마련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 부모에게 경제적 자원을 제공 하는 비율이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선강, 2012).

반면, 穴戶(2008)는 결혼한 딸이 50대가 될 때까지 부모를 지원하기보다는 부모에게 지원을 받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아들 부부와는 다른 특징이라고 하였다. 또한, 김영순과 고선강(2014)에서는 부모 및 자녀 관련 요인을 통제했을 때, 부모는 아들보다는 딸에게 지원을 많이 한다고 하였다.

2. 기혼 자녀와 부모와의 지원과 기혼 자녀의 결혼 생활 만족도와의 관계

기혼 자녀의 결혼 생활 만족도에 세대 간 지원이 둘러싼 배우자와의 관계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는 선행 연구들이 있다.

한광희(2010)에 따르면 남편의 입장에서 부인이 자신의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거나 혹은 식구들과의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남편의 생활 만족도를 높이는 요인이었다. 부인의 입장에서 남편이 본인의 식구들과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 노력하고 본인의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는 등의 역할 수행을 잘할수록 부인의 생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석과 조윤주(2012)는 일본의 기혼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부인 부모에 대한 남편의 태도에 만족할수록 기혼 여성과 그 부모 간 대화 빈도가 많아진다는 점을 밝혀내 부인 부모와의 관계에서 부인 본인뿐만 아니라 남편의 역할 또한 중요함을 시사하였다.

또한, 자신의 부모와 배우자의 관계가 본인의 심리적 복지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주리(2012)에 의하면 시아버지가 아내에 대해 수용적일수록 남

편의 심리적 복지는 높아지고, 시아버지가 아내에 대해 거부적일수록 남편의 심리적 복지는 낮아진다고 하였다. 나아가 자신의 부모와 아내가 서로 갈등을 겪고 있을 때 남편은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되며, 이는 남편의 심리적 복지를 크게 저하시킬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최근에는 기혼 여성과 시부모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기혼 남성과 장인 및 장모와의 관계에 주목한 연구 결과들도 소개되고 있다.

전세송과 전귀연(2014)에서는 사위와 만나는 빈도가 높거나 사위로부터 도움을 받는 빈도가 많을수록 장모가 느끼는 장모-사위 관계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세송과 김수경(2011)에 따르면 사위는 장모로부터 경제적 도움이 많을수록 장모-사위 관계를 긍정적으로 지각하였다. 이는 세대 간 지원이 기혼 자녀의 결혼 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시부모와 며느리, 장모와 사위 사이의 갈등 요소를 완화시킴으로써 기혼 자녀 부부의 결혼 생활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임을 시사한다.

한민아와 한경혜(2004)에 따르면 부모와 자녀 간 지원 교환이 일방적이지 않을 경우에 성인 자녀의 심리적 복지감이 높은 편인 반면, 부모와 자녀 간 지원 교환이 일어나지 않을 경우에 성인 자녀의 심리적 복지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성인 자녀와 부모 간의 균형 잡힌 교환 관계가 부모뿐만 아니라 성인 자녀의 심리적 복지감 향상에 중요한 요소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부모에 대한 지원이 자녀의 생활의 질에 부의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도 있다. 부모 부양감 및 경제적 부담감이 높을수록 기혼 여성의 삶의 질이 낮아짐을 확인한 조성례(2013)의 연구와 며느리의 입장에서 시부모가 아들 부부에게 경제적 지원을 기대하는 것에 큰 불만을 표하기도 했다는 김주희(2009)의 연구가 이에 해당한다.

이상에서 기혼 자녀와 부모의 지원 양상이 남편 부모와 부인 부모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점을 확

인하였다. 또한, 배우자와 본인의 부모와의 관계가 본인의 심리적 복지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도 밝혀졌다. 그러나 기혼 자녀의 부모에 대한 지원과 부모로부터 기혼 자녀가 받는 지원을 동시에 다루고 있지 않으며 두 가지의 요인이 기혼 자녀의 남편과 부인 각각의 결혼 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 분석은 그지 많지 않은 실정이다.

- 2-1. 기혼 자녀의 부모에 대한 지원 빈도에 따라 기혼 자녀의 결혼 생활 만족도는 한일 양국 간에 차이가 있는가?
- 2-2. 부모의 기혼 자녀에 대한 지원 빈도에 따라 기혼 자녀의 결혼 생활 만족도는 한일 양국 간에 차이가 있는가?

III. 연구 문제 및 연구 방법

1. 연구 문제

본 연구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 문제 1. 기혼 자녀와 부모 간의 지원 양상은 한일 양국 간에 차이가 있는가?
- 1-1. 기혼 자녀의 특성에 따른 기혼 자녀와 부모 간 지원 양상은 한일 양국 간에 차이가 있는가?
 - 1-2. 부모의 특성에 따른 기혼 자녀와 부모 간 지원 양상은 한일 양국 간에 차이가 있는가?
- 연구 문제 2. 기혼 자녀와 부모 간의 지원 빈도에 따라 기혼 자녀의 결혼 생활 만족도는 한일 양국 간에 차이가 있는가?

2. 분석 자료 및 변수의 측정 방법

1) 분석 자료 및 분석 대상

분석에 이용할 데이터는 EASS2006이다. EASS2006 조사는 EASS2006(East Asian Social Survey)프로젝트가 실시한 것으로 동아시아 사회의 특유한 문제 및 관심을 바탕으로 공통의 설문을 설정하고 일본, 한국, 중국, 대만의 동아시아 4개국에서 실시한 전국 규모의 가족에 관한 조사이다. 이 데이터는 조사 설계 당시부터 국제 비교를 목적으로 설계되었으므로 비교 분석에 적합한 데이터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일본에 한정해서 분석하였다.

EASS2006¹⁾의 한국 조사 자료는 2006년 6월부터 8월에 걸쳐서, 18세 이상의 남녀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유효 응답수는 1,605명, 회수율 65.7%이다. 일본 조사 자료는 2006년 10월부터 12월에 걸쳐서 20-89세의 남녀를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유효 응답수는 2,130명, 회수율 59.8%이다(岩井·保田, 2009).

1) EASS2006조사는 개인 단위로 진행되었으며 조사 설계상 부부 단위로 조사 대상자를 추출해 내기 어려운 구조임을 밝혀 둔다. EASS2006에 관해서는 岩井·保田(2009)를 참조하기 바란다. 조사가 이루어진 시점이 2006년이며 아카이브를 통해 데이터가 공개된 시점은 2009년 2월이다. 분석 자료의 조사 시점이 문제가 될 수 있겠으나, 본 자료를 분석에 이용한 이유를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한국과 일본에서 전국을 단위로 층화 3단계 혹은 층화 2단계 무작위 추출로 얻어진 샘플이며 국제 비교가 가능한 문항으로 작성된 국제 비교 조사라는 점을 고려하였다. 둘째, 한국의 통계청이 발표한 사회조사 결과(통계청 보도 자료, 2016) 중, 부모의 생활비를 자녀가 부담하는 비율의 시기별 변화를 보면, 2008년 52.9%, 2010년 51.6%, 2012년 50.7%, 2014년 49.5%, 2016년 47.4%로 조사 시마다 그 비율은 감소하고 있지만, 2016년도 조사 기준으로 조사 대상자의 절반 정도는 부모의 생활비를 자녀가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또한, 부모 생활비의 주 제공자의 변화 추이가 2008년에는 장남 또는 맏며느리의 비율이 14.6%, 딸 또는 사위의 비율이 1.9%인 것에 반해 2016년에는 장남 또는 맏며느리의 비율이 8.8%, 딸 또는 사위의 비율이 2.3%로 나타난 점에 주목하였다. 장남 또는 맏며느리의 비율은 변화가 있는 반면, 딸 또는 사위의 비율은 거의 변동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배우 상태로 자신의 부모와 배우자의 부모 중 적어도 한 명은 생존해 있으며 부모와 동거 상태가 아닌 60 세 이하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한국에서는 548 명(남성 229 명, 여성 319 명), 일본에서는 469 명(남성 220 명, 여성 249 명)이 선정되었다. 주요한 분석 방법으로는 기술통계, 교차표분석, 분산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2) 측정 도구의 구성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방법은 <표 1>에 제시하였다. 종속변수로는 기혼 자녀의 결혼 생활 만족도를 이용하였다. 다음으로 기혼 자녀와 부모의 지원 관계를 나타내는 변수로는 기혼 자녀의 부모에 대한 지원과 기혼 자녀에 대한 부모의 지원 두 가지로 측정하였다. ‘지난 1년 동안 귀하는 귀하의 부모님과 배우자의 부모님께 경제적 지원 및 청소, 식사 준비, 장보기, 심부름 등의 집안일 혹은 건강 돌봐드리기와 같은 일들을 얼마나 자주 해 드렸습니까?’라는 질문과 ‘지난 1년 동안 귀하의 부모님과 배우자의 부모님께서는 귀하에게 경제적 지원 및 청소, 식사 준비, 장보기, 심부름 등의 집안일 혹은 자녀 돌봐주기와 같은 일들을 얼마나 자주 해 주셨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을 변수로 이용하였다. 본인 부모 및 배우자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응답을 남편 부모 및 부인 부모에 대한 응답으로 재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 남성의 입장에서 자신의 부모와 여성의 입장에서 배우자의 부모를 남편 부모로, 남성의 입장에서 배우자의 부모와 여성의 입장에서 자신의 부모를 부인 부모로 하는 변수를 구성하였다. 이들 질문에 대한 응답은 5 점 척도 [매우 자주 있었음(1 점), 자주 있었음(2 점), 가끔 있었음(3 점), 거의 없었음(4 점), 전혀 없었음(5 점)]으로 측정하였으며 분석을 위해서 역코딩하였다. 또한, <연구 문제 1>과 <연구 문제 2>는 그룹 간의 차이를 분석하는 것에 중점을 둔 것으로, 분포의 치우침을

조정하고 결과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세 그룹으로 분류하였다. 역코딩한 점수 1 점을 ‘거의 없었음(그룹 1)’, 2 점과 3 점을 ‘가끔 있었음(그룹 2)’, 4 점과 5 점을 ‘자주 있었음(그룹 3)’으로 분류하였다.

기혼 자녀 관련 요인으로는 남편과 부인의 연령, 남편과 부인의 수입, 남편과 부인의 출생 순위, 남편과 부인의 형제자매 유무, 맞벌이 여부를 설정하였다. 남편의 수입 변수는 한국과 일본의 질문 방식이 상이하어 한국은 월평균 소득을, 일본은 연평균 소득을 이용하였다. 구체적인 질문 방식은 한국 자료는 ‘월평균 근로 소득은 대략 얼마입니까? 세금 공제 이전의 액수로서 기본급·상여금·수당 등을 모두 포함하여 말씀해 주십시오’에 대해 연속 변수로서 얻어진 응답을 3 개의 카테고리로 구분하였다.

일본 자료는 연평균 수입에 대해서 「없음」부터 「2300 만엔 이상」의 19 개의 선택지에서 선택하게 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선택지를 묶어서 4 개의 카테고리로 재구성하였다. 데이터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국과 일본의 자료 형식을 통일하지 않고 사용하였다. 남편과 부인의 출생 순위는 남편의 장남 여부, 부인의 장녀 여부로 변수를 구성하였으며, 남편과 부인의 형제자매 유무는 남편 및 부인 각각의 형제자매 유무를 변수로 구성하였다. 부모 관련 요인으로는 부모의 생존 여부, 부모의 취업 형태, 부모의 거주 상황, 부모의 건강 상태를 설정하였다. 그중에서 거주 상황 및 부모의 건강 상태는 남편의 부친, 남편의 모친, 부인의 부친, 부인의 모친에 대한 각각의 정보를 이용하여 변수를 구성하였다.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1〉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방법

변수	정의 및 측정 방법	
종속변수	'귀하는 모든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귀하의 결혼생활에 어느 정도 만족 또는 불만족하십니까?'의 단일문항. 5점 척도(매우 만족(1점)~매우 불만족(5점))으로 측정하였으며 분석에서는 역코딩하여 사용함.	
기혼 자녀와 부모의 지원 관계	<p>부모에 대한 기혼 자녀의 지원</p> <p>'지난 1년 동안 귀하는 귀하의 부모님께 다음과 같은 일들을 얼마나 자주 해 드렸습니까?', '지난 1년 동안 귀하는 배우자의 부모님께 다음과 같은 일을 얼마나 자주 해 드렸습니까?' ①과 ② 각각에 대한 응답을 이용. 본인 부모 및 배우자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응답을 얻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남편 부모 및 부인 부모에 대한 응답으로 변수를 재구성함.</p> <p>① 경제적 지원 ② 청소, 식사준비, 장보기, 심부름 등의 집안일 혹은 건강 돌봐드리기</p>	
	<p>기혼 자녀에 대한 부모의 지원</p> <p>'지난 1년 동안 귀하의 부모님께서는 귀하에게 다음과 같은 일들을 얼마나 자주 해 주셨습니까?', '지난 1년 동안 배우자의 부모님께서는 귀하에게 다음과 같은 일들을 얼마나 자주 해 주셨습니까?' ①과 ② 각각에 대한 응답을 이용. 본인 부모 및 배우자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응답을 얻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남편 부모 및 부인 부모에 대한 응답으로 변수를 재구성함.</p> <p>① 경제적 지원 ② 청소, 식사준비, 장보기, 심부름 등의 집안일 혹은 자녀 돌봐주기</p>	
남편 연령/부인 연령	본인 및 배우자 연령에 대한 응답을 이용하여 4개의 카테고리로 구분함. 또한, 남편 연령 및 부인 연령에 대한 응답으로 변수를 재구성함.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60세를 포함)	
기혼 자녀 관련 요인	남편 수입 월평균/연평균	'월평균 근로소득은 대략 얼마입니까? 세금 공제 이전의 액수로서 기본급·상여금·수당 등을 모두 포함하여 말씀해 주십시오.'에 대한 응답을 이용함. 한국 자료는 연속변수로서 월평균 소득을 카테고리로 구분. 일본 자료는 「없음」부터 「2300만엔 이상」의 19개의 선택지에서 선택하게 되어있음. 선택지를 묶어서 카테고리 변수로 재구성함.
	부인 수입 월평균/연평균	남편의 월평균 수입/연평균 수입과 동일한 방법으로 산출함.
	맞벌이 여부	맞벌이 이외=0 맞벌이=1
	남편과 부인 출생 순위	장남 이외/장녀 이외=0 장남/장녀=1
	남편과 부인 형제자매 유무	형제자매 있음=0 형제자매 없음=1
부모 관련 요인	부모 생존 여부	'본인의 부친, 본인의 모친, 배우자의 부친, 배우자의 모친은 현재 생존해 계십니까?'에 대한 응답(생존 혹은 사망)을 이용하여 남편 부모 및 부인 부모에 대한 응답으로 변수를 재구성함. ① 양친 모두 생존 ② 부친만 생존 ③ 모친만 생존
	부모 취업 형태	'본인의 부친, 본인의 모친, 배우자의 부친, 배우자의 모친은 지금 수입이 있는 일을 하고 계십니까?'에 대한 응답(취업 혹은 미취업)을 이용하여 남편 부모 및 부인 부모에 대한 응답으로 변수를 재구성함. ① 양친 모두 취업 ② 부친만 취업 ③ 모친만 취업 ④ 양친 모두 비취업
	부모 건강 상태	'본인의 부친의 건강, 본인의 모친의 건강, 배우자의 부친의 건강, 배우자의 모친의 건강은 어떻습니까?'에 대한 응답을 이용함. 또한, 남편 부모(부친 및 모친) 및 부인 부모(부친 및 모친)에 대한 응답으로 변수를 재구성함. 5점 척도(아주 좋다(1점)부터 아주 안 좋다(5점))으로 측정. 1점 및 5점이외의 단계는 숫자로 제시.
	부모 거주 상황	'본인의 부친, 본인의 모친, 배우자의 부친, 배우자의 모친은 주로 누구와 함께 살고 계십니까?'에 대한 응답을 이용함. ① 기혼 자녀와 동거 ② 미혼 자녀와 동거 ③ 배우자와 단둘이 혹은 혼자서

〈표 2〉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단위: 빈도(%)

기혼 자녀 관련 특성		한국(N=548)		일본(N=469)		부모 관련 특성		한국(N=548)		일본(N=469)	
남편 연령	20대	17(9.38)		34(7.25)		부모 생존 여부	양친 모두 생존	294(53.65)	336(61.31)	289(61.62)	313(66.74)
	30대	219(39.96)		156(33.26)			부친만 생존	19(3.47)	33(0.02)	27(5.76)	22(4.69)
부인 연령	40대	253(44.17)		145(30.92)		부모 취업 형태	모친만 생존	235(42.88)	179(32.66)	153(32.62)	134(28.57)
	50대	59(10.77)		134(28.57)			양친 모두 취업	61(20.75)	76(22.69)	83(29.75)	68(22.74)
남편수입	200만원 이하/350만원 미만	191(35.57)		91(23.82)		부친 거주 상황	부친만 취업	61(20.75)	75(22.39)	49(17.56)	69(23.08)
	350만원 이하/550만원 미만	200(37.24)		119(31.15)			모친만 취업	12(4.08)	9(2.69)	14(5.02)	17(5.69)
부인 수입	351만원 이상/750만원 미만	146(27.19)		87(22.77)		부친 건강 상태	양친 모두 비취업	160(54.42)	175(52.24)	133(47.67)	145(48.49)
	—/750만원 이상	—		85(22.25)			나쁨	99(31.63)	131(35.60)	57(18.45)	69(21.04)
남편/부인 출생 순위	장남/장녀 이외	402(73.36)	413(75.36)	270(57.57)	283(60.34)	모친 거주 상황	중간	84(26.84)	113(30.71)	121(39.16)	138(42.07)
	장남/장녀	146(26.64)	135(24.64)	199(42.43)	186(39.66)		좋은	130(41.53)	124(33.70)	131(42.39)	121(36.89)
남편/부인 형제자매 유무	있음	540(98.54)	542(98.91)	445(94.88)	446(95.10)	모친 건강 상태	나쁨	213(40.34)	223(43.30)	99(22.81)	95(21.59)
	없음	8(1.46)	6(1.09)	24(5.12)	23(4.90)		중간	161(30.49)	155(30.10)	172(39.63)	182(41.36)
맞벌이 여부	맞벌이 아님	322(58.76)		188(40.09)		좋은	154(29.17)	137(26.60)	163(37.56)	163(37.05)	
	맞벌이	226(41.24)		281(59.91)							

주: 결측치로 인해 항목 간 사례수에 차이가 있음.

IV. 연구 결과

1. 한국과 일본의 기혼 자녀와 부모의 지원 양상

한국과 일본의 기혼 자녀와 부모의 지원 양상을

〈표 3〉와 〈표 4〉에 제시하였다. 〈표 3〉은 기혼 자녀의 부모에 대한 지원 양상을 나타낸 것이다. 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의 경우, 남편 부모 및 부인 부모에 대한 지원 모두 한국은 '가끔 해 드렸다(그룹 2)'와 '자주 해 드렸다(그룹 3)'의 비율이 높은 것에 비해서 일본은 '전혀 해 드리지 않았다(그

〈표 3〉 한국과 일본의 기혼 자녀의 부모에 대한 지원 양상

단위: 빈도(%)

기혼 자녀의 부모에 대한 지원		전혀 해 드리지 않았다	가끔 해 드렸다	자주 해 드렸다	합계	
기혼 자녀의 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	남편 부모	한국	30(5.49)	342(62.64)	174(31.87)	546(100)
		일본	240(51.72)	204(43.97)	20(4.31)	464(100)
		$\chi^2 = 315.8846^{***}$				
	부인 부모	한국	53(9.67)	393(71.72)	102(18.61)	548(100)
		일본	260(55.79)	197(42.27)	9(1.93)	466(100)
		$\chi^2 = 275.0964^{***}$				
기혼 자녀의 부모에 대한 가사 및 돌봄 지원	남편 부모	한국	55(10.07)	361(66.12)	130(23.81)	546(100)
		일본	192(41.47)	255(55.08)	16(3.46)	463(100)
		$\chi^2 = 177.6161^{***}$				
	부인 부모	한국	74(13.50)	407(74.27)	27(12.23)	548(100)
		일본	196(42.06)	246(52.79)	24(5.15)	466(100)
		$\chi^2 = 109.2230^{***}$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표 4〉 한국과 일본의 부모의 기혼 자녀에 대한 지원 양상

단위: 빈도(%)

부모의 기혼 자녀에 대한 지원		전혀 해 주시지 않았다	가끔 해 주셨다	자주 해 주셨다	합계	
부모로부터 기혼 자녀가 받은 경제적 지원	남편 부모	한국	207(37.84)	285(52.10)	55(10.05)	547(100)
		일본	208(44.08)	238(50.43)	22(4.74)	464(100)
		$\chi^2 = 12.4265^{**}$				
	부인 부모	한국	192(35.04)	308(56.20)	48(8.76)	548(100)
		일본	167(35.91)	263(56.56)	35(7.53)	465(100)
		$\chi^2 = 0.5264$				
부모로부터 기혼 자녀가 받은 가사 및 돌봄 지원	남편 부모	한국	224(40.95)	167(30.53)	156(28.52)	547(100)
		일본	241(51.94)	148(31.90)	75(16.16)	464(100)
		$\chi^2 = 23.5146^{***}$				
	부인 부모	한국	187(34.12)	208(37.96)	153(27.92)	548(100)
		일본	193(41.51)	177(38.06)	95(20.43)	465(100)
		$\chi^2 = 9.4180^{**}$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그룹 1)의 비율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에 대한 가사 및 돌봄 지원의 경우, 남편 부모 및 부인 부모에 대한 지원 모두 한국과 일본에서 동일하게 그룹 2의 비율이 가장 많았으나, 일본은

그룹 1의 비율도 약 4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 한국의 응답과는 차이를 보였다. 한국과 일본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남편 부모, 부인 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 가사 및 돌봄 지원 모두 한국은 그룹

2와 그룹 3의 응답 비율이 높았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임이 인정되었다. 다음으로 <표 4>는 부모의 기혼 자녀에 대한 지원 양상을 나타낸 것이다. 부모의 기혼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의 경우, 한국과 일본 모두 그룹 2가 가장 많았고 그룹 1이 그 뒤를 이었다. 이러한 현상은 남편 부모 및 부인 부모 모두 동일하였다. 한편 부모의 기혼 자녀에 대한 가사 및 돌봄 지원의 경우, 그룹 3의 응답 비율에 주목하면 한국과 일본 모두 남편 부모가 ‘자주 해 주셨다’는 응답보다 부인 부모가 ‘자주 해 주셨다’는 응답 비율이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 일본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남편 부모로부터의 지원은 경제적 지원, 가사 및 돌봄 지원 모두 한국의 그룹 3의 응답 비율이 더 높은 수준이었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기혼 자녀의 부모에 대한 지원이 더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일본은 기혼 자녀의 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전혀 없었다는 응답과 부모의 기혼 자녀에 대한 가사 및 돌봄 지원도 전혀 없었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양국의 차이를 드러냈다.

2. 기혼 자녀의 특성별 기혼 자녀와 부모와의 지원 양상

1) 기혼 자녀의 특성별 부모에 대한 지원

기혼 자녀의 특성별 부모에 대한 지원 빈도를 <표 5>과 <표 6>에 제시하였다.

<표 5>는 한국의 결과를 제시한 것인데, 남편의 월평균 수입 및 부인의 월평균 수입별로 기혼 자녀의 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 빈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었다. 남편의 월평균 수입이 높은 집단에서 남편 부모 및 부인 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의 빈도가 가장 빈번한 그룹 3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부인의 월평균 수입이 높은 집단에서는 경제적 지원에 있어서 그룹 3의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부인의 월평균 수입이 많은 집단은 기혼 자녀의 부모에 대한 가사 및 돌봄 지원에 있어서는 남편 부모 및 부인 부모에 대해 모두 그룹 3의 응답 비율이 낮았다. 맞벌이 여부는 맞벌이일수록 남편 부모와 부인 부모에 대해 가사 및 돌봄 지원의 빈도가 낮게 나타났다. 부인이 장녀인 집단에서는 부인이 장녀가 아닌 집단보다 부인 부모에 대한 가사 및 돌봄 지원이 빈번한 그룹 3의 응답 비율이 높았다. 남편 및 부인의 형제자매 유무는 남편이 외동이일 경우 남편 부모에 대한 가사 및 돌봄 지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은 일본의 결과를 제시한 것인데, 한국과는 달리 남편과 부인의 연령대별로 기혼 자녀의 부모에 대한 지원 빈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 연령이 낮은 집단에서 그룹 1의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고 남편 연령이 높은 집단일수록 그룹 1의 응답 비율은 낮았으며 이는 경제적 지원, 가사 및 돌봄 지원에서도 동일하였다. 한편, 가사 및 돌봄 지원에 있어서는 부인 연령이 30대인 집단에서 그룹 1의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는데 부인이 30대일 경우 자신이 자녀를 돌보는 시기에 있을 가능성을 추론해 볼 수 있다. 기혼 자녀의 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있어서 부인이 장녀가 아닌 집단이 부인이 장녀인 집단보다 그룹 1의 응답 비율이 낮은 반면 그룹 2의 응답 비율은 높았다.

기혼 자녀의 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의 차이를 가져오는 요인이 한국과 일본에서 다르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한국은 기혼 자녀의 수입에 따른 경제적 지원 빈도 차이가 두드러진 반면, 일본은 기혼 자녀의 연령에 따른 경제적 지원 빈도 차이가 명확하였다. 또한 부인의 형제자매 유무에 따라서는 한국에서는 부인 부모에 대한 가사 및 돌봄 지원 빈도에 차이를 보였고, 일본에서는 부인 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의 빈도에 차이가 있었다.

〈표 5〉 한국의 기혼 자녀 특성별 부모에 대한 지원

단위: 빈도(%)

한국		기혼 자녀의 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								기혼 자녀의 부모에 대한 가사 및 돌봄 지원							
		남편 부모				부인 부모				남편 부모				부인 부모			
		전혀 해 드리지 않았다	가끔 해 드렸다	자주 해 드렸다	합계	전혀 해 드리지 않았다	가끔 해 드렸다	자주 해 드렸다	합계	전혀 해 드리지 않았다	가끔 해 드렸다	자주 해 드렸다	합계	전혀 해 드리지 않았다	가끔 해 드렸다	자주 해 드렸다	합계
남편 연령	20대	0(0.00)	12(70.59)	5(29.41)	17(100)	3(17.65)	12(70.59)	2(11.76)	17(100)	0(0.00)	12(70.59)	5(29.41)	17(100)	2(11.76)	14(82.35)	1(5.88)	17(100)
	30대	13(5.96)	143(65.60)	62(28.44)	218(100)	20(9.13)	164(74.89)	35(15.98)	291(100)	23(10.55)	148(67.89)	47(21.56)	218(100)	29(13.24)	158(72.15)	32(14.61)	219(100)
	40대	11(4.37)	153(60.71)	88(34.92)	252(100)	22(8.70)	175(67.17)	56(22.13)	253(100)	22(8.73)	165(65.48)	65(25.79)	252(100)	31(12.25)	191(75.49)	31(12.25)	253(100)
	50대	6(10.17)	34(57.63)	19(32.20)	59(100)	8(13.56)	42(71.19)	9(15.25)	59(100)	10(16.95)	36(61.02)	13(22.03)	59(100)	12(20.34)	44(74.58)	3(5.08)	59(100)
		$\chi^2 = 6.3895$				$\chi^2 = 6.1820$				$\chi^2 = 6.5673$				$\chi^2 = 6.7582$			
부인 연령	20대	1(2.08)	34(70.83)	13(27.08)	48(100)	6(12.24)	37(75.51)	6(12.24)	49(100)	5(10.42)	36(75.00)	7(14.58)	48(100)	8(16.33)	36(73.47)	5(10.20)	49(100)
	30대	15(5.43)	170(61.59)	91(32.97)	276(100)	26(9.42)	201(72.83)	49(17.75)	276(100)	24(8.70)	177(64.13)	75(27.17)	276(100)	34(12.32)	201(72.83)	41(14.86)	276(100)
	40대	12(6.28)	120(62.83)	59(30.89)	191(100)	18(9.42)	129(67.54)	44(23.04)	191(100)	23(12.04)	126(65.97)	42(21.99)	191(100)	26(13.61)	146(76.44)	19(9.95)	191(100)
	50대	2(6.45)	18(58.06)	11(35.48)	41(100)	3(9.38)	26(81.25)	3(9.38)	32(100)	3(9.68)	22(70.77)	6(19.35)	31(100)	6(18.75)	24(75.00)	2(6.25)	32(100)
		$\chi^2 = 2.5880$				$\chi^2 = 6.0268$				$\chi^2 = 5.6661$				$\chi^2 = 4.9049$			
남편 월평균 수입	20만원 이하	19(10.00)	130(68.42)	41(21.58)	190(100)	30(15.71)	143(74.87)	18(9.42)	191(100)	21(11.05)	115(60.53)	54(28.42)	190(100)	29(15.18)	142(74.35)	20(10.47)	191(100)
	35만원 이하	7(3.52)	136(68.34)	56(28.14)	199(100)	14(7.00)	145(72.50)	40(20.50)	200(100)	21(10.55)	132(66.33)	46(23.12)	199(100)	22(11.00)	146(72.00)	32(16.00)	200(100)
	35만원 이상	3(2.05)	71(48.63)	72(47.32)	146(100)	9(6.16)	99(67.81)	38(26.03)	146(100)	13(8.90)	107(73.29)	26(17.81)	146(100)	23(15.75)	109(74.66)	14(9.59)	146(100)
		$\chi^2 = 39.6040^{***}$				$\chi^2 = 24.5501^{***}$				$\chi^2 = 6.4007$				$\chi^2 = 5.4660$			
부인 월평균 수입	수입 없음	14(4.58)	197(64.38)	95(31.05)	306(100)	30(9.77)	224(72.96)	53(17.26)	307(100)	29(9.48)	196(64.05)	81(26.47)	306(100)	50(16.29)	216(70.36)	41(13.36)	307(100)
	15만원 이하	12(9.52)	84(66.67)	30(23.81)	126(100)	13(10.32)	95(75.40)	18(14.29)	126(100)	18(14.29)	80(63.49)	28(22.22)	126(100)	8(6.35)	102(80.95)	16(12.70)	126(100)
	15만원 이상	2(2.28)	42(50.00)	40(47.62)	84(100)	4(4.71)	56(65.88)	25(29.41)	85(100)	6(7.14)	66(78.57)	12(14.29)	84(100)	11(12.94)	67(78.82)	7(8.24)	85(100)
		$\chi^2 = 17.4996^{**}$				$\chi^2 = 9.7568^*$				$\chi^2 = 9.5369^*$				$\chi^2 = 9.6880^*$			
남편/부인 출생 순위	장남/장녀 이외	24(5.99)	241(60.10)	136(33.92)	401(100)	40(9.99)	297(71.91)	76(18.40)	413(100)	38(9.48)	275(68.58)	88(21.95)	401(100)	60(14.53)	309(74.82)	44(10.65)	413(100)
	장남/장녀	6(4.14)	101(69.66)	38(26.21)	145(100)	13(9.63)	96(71.11)	26(19.26)	135(100)	17(11.72)	86(59.31)	42(28.97)	145(100)	14(10.37)	98(72.59)	23(17.04)	135(100)
		$\chi^2 = 4.1992$				$\chi^2 = 0.0496$				$\chi^2 = 4.1221$				$\chi^2 = 4.7609$			
남편/부인 형제자매 유무	있음	30(5.58)	336(62.45)	172(31.97)	538(100)	53(9.78)	390(71.96)	99(18.27)	542(100)	54(10.04)	369(66.73)	125(23.23)	538(100)	74(13.65)	402(74.17)	66(12.18)	542(100)
	없음	0(0.00)	6(75.00)	2(25.00)	8(100)	0(0.00)	3(50.00)	3(50.00)	6(100)	1(2.50)	2(25.00)	5(62.50)	8(100)	0(0.00)	5(83.33)	1(16.67)	6(100)
		$\chi^2 = 0.7044$				$\chi^2 = 4.1964$				$\chi^2 = 7.2280^*$				$\chi^2 = 0.9841$			
맞벌이 여부	맞벌이	16(5.00)	205(64.06)	99(30.94)	320(100)	32(9.94)	235(72.98)	55(17.08)	322(100)	31(9.69)	202(63.13)	87(27.19)	320(100)	52(16.15)	227(70.50)	43(13.35)	322(100)
	맞벌이 아님	14(6.19)	137(60.62)	75(33.19)	226(100)	21(9.29)	158(69.91)	47(20.80)	226(100)	24(10.62)	159(70.35)	43(19.03)	226(100)	22(9.73)	180(79.65)	24(10.62)	226(100)
		$\chi^2 = 0.8049$				$\chi^2 = 1.2198$				$\chi^2 = 4.8662$				$\chi^2 = 6.5554^*$			

$p < .05$, $^{**} p < .01$, $^{***} p < .001$

〈표 6〉 일본의 기혼 자녀의 특성에 따른 부모에 대한 지원

단위: 빈도(%)

일본		기혼 자녀의 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								기혼 자녀의 부모에 대한 가사 및 돌봄 지원							
		남편 부모				부인 부모				남편 부모				부인 부모			
		전혀 해 드리지 않았다	가끔 해 드렸다	자주 해 드렸다	합계	전혀 해 드리지 않았다	가끔 해 드렸다	자주 해 드렸다	합계	전혀 해 드리지 않았다	가끔 해 드렸다	자주 해 드렸다	합계	전혀 해 드리지 않았다	가끔 해 드렸다	자주 해 드렸다	합계
남편 연령	20대	24(70.59)	9(26.47)	1(2.94)	34(100)	20(58.82)	14(41.18)	0(0.00)	34(100)	16(47.06)	18(52.94)	0(0.00)	34(100)	14(41.18)	19(55.88)	1(2.94)	34(100)
	30대	97(62.58)	52(33.55)	6(3.87)	155(100)	91(58.71)	60(38.71)	4(2.58)	155(100)	79(51.63)	71(46.41)	3(1.96)	153(100)	70(45.16)	77(49.68)	8(5.16)	155(100)
	40대	71(49.31)	72(50.00)	1(0.69)	144(100)	75(51.72)	68(46.90)	2(1.38)	145(100)	56(38.89)	86(59.72)	2(1.39)	144(100)	61(42.07)	76(52.41)	8(5.52)	145(100)
	50대	48(36.64)	71(54.20)	12(9.16)	131(100)	74(56.06)	55(41.67)	3(2.27)	132(100)	41(31.06)	80(60.61)	11(8.33)	131(100)	51(38.64)	74(56.06)	7(5.30)	132(100)
		$\chi^2 = 34.0352^{***}$				$\chi^2 = 3.2476$				$\chi^2 = 24.1942^{***}$				$\chi^2 = 1.7121$			
부인 연령	20대	30(68.18)	14(31.82)	0(0.00)	44(100)	26(59.09)	18(40.91)	0(0.00)	44(100)	17(38.64)	27(61.36)	0(0.00)	44(100)	16(36.36)	26(59.09)	4(4.55)	44(100)
	30대	113(62.43)	61(33.70)	7(3.87)	181(100)	107(59.12)	69(38.12)	5(2.76)	181(100)	91(50.84)	85(47.49)	3(1.68)	179(100)	88(48.62)	86(47.51)	7(3.87)	181(100)
	40대	70(45.45)	80(51.95)	4(2.60)	154(100)	74(47.74)	77(49.68)	4(2.58)	155(100)	58(37.66)	91(59.09)	5(3.25)	154(100)	57(36.77)	89(57.42)	9(5.81)	155(100)
	50대	27(31.76)	49(57.65)	9(10.59)	85(100)	53(61.63)	33(38.37)	0(0.00)	86(100)	26(30.23)	52(60.47)	8(9.30)	86(100)	35(40.70)	45(52.33)	6(6.98)	86(100)
		$\chi^2 = 36.4965^{***}$				$\chi^2 = 9.3429$				$\chi^2 = 21.8105^{***}$				$\chi^2 = 6.4727$			
남편 연령과 수입	350만원 미만	51(56.04)	32(35.16)	8(8.79)	91(100)	48(52.75)	42(46.15)	1(1.10)	91(100)	37(40.66)	50(54.95)	4(4.40)	91(100)	32(35.16)	50(54.95)	9(9.89)	91(100)
	550만원 미만	59(50.43)	56(47.86)	2(1.71)	117(100)	57(48.72)	57(48.72)	3(2.56)	117(100)	48(41.03)	64(54.70)	5(4.27)	117(100)	51(43.59)	63(53.85)	3(2.56)	117(100)
	750만원 미만	44(50.57)	41(47.13)	2(2.30)	87(100)	50(57.47)	37(42.53)	0(0.00)	87(100)	39(44.83)	45(51.72)	3(3.45)	87(100)	36(41.38)	47(54.02)	4(4.60)	87(100)
	750만원 이상	40(48.19)	38(45.78)	5(6.02)	83(100)	48(57.14)	31(36.90)	5(5.95)	84(100)	38(46.34)	43(52.44)	1(1.22)	82(100)	40(47.62)	38(45.24)	6(7.14)	84(100)
		$\chi^2 = 9.9518$				$\chi^2 = 9.8972$				$\chi^2 = 2.2868$				$\chi^2 = 7.9610$			
부인 연령과 수입	수입 없음	80(55.17)	59(40.69)	6(4.14)	145(100)	87(60.00)	55(37.93)	3(2.07)	145(100)	57(39.86)	83(58.04)	3(2.10)	143(100)	60(41.38)	79(54.48)	6(4.14)	145(100)
	150만원 미만	76(53.52)	58(40.85)	8(5.63)	142(100)	77(53.85)	63(44.06)	3(2.10)	143(100)	54(37.76)	85(59.44)	4(2.80)	143(100)	54(37.59)	80(55.94)	9(6.29)	143(100)
	150만원 이상	41(43.16)	50(52.63)	4(4.21)	95(100)	41(42.71)	52(54.17)	3(3.13)	96(100)	48(50.53)	43(45.26)	4(4.21)	95(100)	42(43.75)	46(47.92)	8(8.33)	96(100)
		$\chi^2 = 4.4802$				$\chi^2 = 7.0191$				$\chi^2 = 5.6739$				$\chi^2 = 4.0180$			
남편/부인 출생 순위	장남/장녀 이외	132(49.44)	119(44.57)	16(5.99)	267(100)	144(51.25)	129(45.91)	8(2.85)	281(100)	113(42.32)	142(53.18)	12(4.49)	267(100)	108(38.43)	159(56.58)	14(4.98)	281(100)
	장남/장녀	108(54.82)	85(43.15)	4(2.03)	197(100)	116(62.70)	68(36.76)	10(5.54)	185(100)	79(40.31)	113(57.65)	4(2.04)	196(100)	88(47.57)	87(47.03)	10(5.41)	185(100)
		$\chi^2 = 4.8159$				$\chi^2 = 7.9069^*$				$\chi^2 = 2.4897$				$\chi^2 = 4.1813$			
남편/부인 형제자매 유무	있음	230(52.27)	191(43.41)	19(4.32)	440(100)	247(55.63)	188(42.34)	9(2.03)	444(100)	184(41.91)	239(54.44)	16(3.64)	439(100)	187(42.12)	234(52.70)	23(5.18)	444(100)
	없음	10(41.67)	13(54.17)	1(4.17)	24(100)	13(59.09)	9(40.91)	0(0.00)	22(100)	8(33.33)	16(66.67)	0(0.00)	24(100)	9(40.91)	12(54.55)	1(4.55)	22(100)
		$\chi^2 = 1.0952$				$\chi^2 = 0.5011$				$\chi^2 = 1.8962$				$\chi^2 = 0.0372$			
맞벌이 여부	맞벌이	104(55.91)	74(39.78)	8(4.30)	186(100)	115(61.83)	68(36.56)	3(1.61)	186(100)	80(43.48)	97(52.72)	7(3.80)	184(100)	78(41.94)	101(54.30)	7(3.76)	186(100)
	맞벌이 아님	136(48.92)	130(46.76)	12(4.32)	278(100)	145(51.79)	129(46.07)	6(2.14)	280(100)	112(40.14)	158(56.63)	9(3.23)	279(100)	118(42.14)	145(51.79)	17(6.07)	280(100)
		$\chi^$															

〈표 7〉 한국의 기혼 자녀의 특성별 부모의 기혼 자녀에 대한 지원

		부모의 기혼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												부모의 기혼 자녀에 대한 가사 및 돌봄 지원											
한국		남편 부모로부터 받은 경제적 지원				부인 부모로부터 받은 경제적 지원				남편 부모로부터 받은 가사 및 돌봄 지원				부인 부모로부터 받은 가사 및 돌봄 지원											
		전혀 해 주시지 않았다	가끔 해 주었다	자주 해 주었다	합계	전혀 해 주시지 않았다	가끔 해 주었다	자주 해 주었다	합계	전혀 해 주시지 않았다	가끔 해 주었다	자주 해 주었다	합계	전혀 해 주시지 않았다	가끔 해 주었다	자주 해 주었다	합계								
남편 연령	20대	2(11.76)	11(64.71)	4(23.53)	17(100)	3(17.65)	10(58.82)	4(23.53)	17(100)	1(5.88)	7(41.18)	9(52.94)	17(100)	2(11.76)	9(52.94)	5(35.29)	17(100)								
	30대	53(24.20)	135(61.64)	31(14.16)	219(100)	51(23.29)	139(63.47)	29(13.24)	219(100)	67(30.59)	79(36.07)	73(33.33)	219(100)	45(20.55)	95(43.89)	79(36.07)	219(100)								
	40대	117(46.43)	118(46.83)	17(6.75)	252(100)	104(41.11)	138(54.55)	11(4.35)	253(100)	121(48.02)	69(27.38)	62(24.60)	252(100)	106(41.90)	92(36.36)	55(21.74)	253(100)								
	50대	35(59.32)	21(35.59)	3(5.08)	59(100)	34(57.63)	21(35.59)	4(6.78)	59(100)	35(59.32)	12(20.34)	12(20.34)	59(100)	34(57.63)	12(20.34)	13(22.03)	59(100)								
			$\chi^2 = 45.629^{***}$			$\chi^2 = 43.154^{***}$				$\chi^2 = 32.5114^{***}$				$\chi^2 = 45.7848^{***}$											
부인 연령	20대	6(12.24)	34(69.39)	9(18.37)	49(100)	14(25.57)	26(53.06)	9(18.37)	49(100)	6(12.24)	28(57.14)	15(30.61)	49(100)	7(14.29)	22(44.90)	20(40.82)	49(100)								
	30대	86(31.16)	159(57.61)	31(11.23)	276(100)	74(26.81)	176(63.77)	26(9.42)	276(100)	100(36.23)	87(31.52)	89(32.25)	276(100)	76(27.54)	113(40.94)	87(31.52)	276(100)								
	40대	94(49.21)	84(43.98)	13(6.81)	191(100)	85(44.50)	94(49.21)	12(6.28)	191(100)	98(51.31)	48(25.13)	45(23.56)	191(100)	84(43.98)	65(34.03)	42(21.99)	191(100)								
	50대	21(67.74)	8(25.81)	2(6.45)	31(100)	19(59.38)	12(37.50)	1(3.13)	32(100)	20(64.52)	4(12.90)	7(22.58)	31(100)	20(62.50)	8(25.00)	4(12.50)	31(100)								
			$\chi^2 = 42.6941^{***}$			$\chi^2 = 30.5556^{***}$				$\chi^2 = 40.4534^{***}$				$\chi^2 = 45.7848^{***}$											
남편 월평균 수입	200만원 이하	72(57.89)	96(50.53)	22(11.58)	190(100)	63(32.98)	108(56.54)	20(10.47)	191(100)	79(41.58)	56(29.47)	55(28.95)	190(100)	61(31.94)	83(43.46)	47(24.61)	191(100)								
	350만원 이하	64(32.00)	111(55.50)	25(12.50)	200(100)	66(33.00)	112(56.00)	22(11.00)	200(100)	74(37.00)	67(33.50)	59(29.50)	200(100)	65(32.50)	71(35.50)	64(32.00)	200(100)								
	351만원 이상	67(45.89)	72(49.32)	7(4.79)	146(100)	59(40.41)	82(56.16)	5(3.42)	146(100)	65(44.52)	41(28.08)	40(27.40)	146(100)	59(40.41)	49(33.56)	38(26.03)	146(100)								
			$\chi^2 = 10.6681^*$			$\chi^2 = 8.2105$				$\chi^2 = 2.2088$				$\chi^2 = 6.8044$											
	수입 없음	111(56.16)	170(55.37)	26(8.47)	307(100)	102(33.22)	179(58.31)	26(8.47)	307(100)	125(41.04)	103(33.55)	78(25.41)	307(100)	101(32.90)	123(40.07)	83(27.04)	307(100)								
부인 월평균 수입	150만원 이하	48(38.10)	64(50.79)	14(11.11)	126(100)	43(34.13)	73(57.94)	10(7.94)	126(100)	56(44.44)	31(24.60)	39(30.95)	126(100)	48(38.10)	46(36.51)	32(25.40)	126(100)								
	151만원 이상	36(42.86)	37(44.05)	11(13.10)	84(100)	31(36.47)	44(51.76)	10(11.76)	85(100)	29(34.52)	26(30.95)	29(34.52)	84(100)	23(27.06)	32(37.65)	30(35.29)	85(100)								
			$\chi^2 = 4.1829$			$\chi^2 = 1.7056$				$\chi^2 = 5.9113$				$\chi^2 = 4.2320$											
	장남/장녀 이외	164(40.90)	203(50.62)	34(8.48)	401(100)	148(35.84)	231(55.93)	34(8.23)	413(100)	174(43.39)	113(28.18)	114(28.43)	401(100)	147(35.59)	152(36.80)	114(27.60)	413(100)								
	장남/장녀	43(29.45)	82(56.16)	21(14.38)	146(100)	44(29.59)	77(57.04)	14(10.37)	135(100)	50(34.25)	54(36.99)	42(28.77)	146(100)	40(29.63)	56(41.48)	39(28.89)	135(100)								
남편/부인 출생 순위	있음	206(38.22)	279(51.76)	54(10.02)	539(100)	190(35.06)	305(56.27)	47(8.67)	542(100)	222(41.19)	162(30.06)	155(28.76)	539(100)	187(34.50)	204(37.64)	151(27.86)	542(100)								
	없음	2(12.50)	6(75.00)	1(12.50)	8(100)	2(33.33)	3(50.00)	1(16.67)	6(100)	2(25.00)	5(62.50)	1(12.50)	8(100)	0(0.00)	4(66.67)	2(33.33)	6(100)								
			$\chi^2 = 2.2431$			$\chi^2 = 0.4796$				$\chi^2 = 3.9529$				$\chi^2 = 3.4512$											
	맞벌이 여부	118(36.76)	175(54.52)	28(8.72)	321(100)	107(33.23)	188(58.39)	27(8.39)	322(100)	134(41.74)	108(33.64)	79(24.61)	321(100)	107(33.23)	126(39.13)	89(17.64)	322(100)								
	맞벌이	89(39.38)	110(48.67)	27(11.95)	226(100)	85(37.61)	120(53.10)	21(9.29)	226(100)	90(39.82)	59(26.11)	77(34.07)	226(100)	80(35.40)	82(36.28)	64(28.32)	226(100)								
		$\chi^2 = 2.4813$			$\chi^2 = 1.5127$				$\chi^2 = 6.7503^*$				$\chi^2 = 4.885$												

$p < .05$, $^{**} p < .01$, $^{***} p < .001$

〈표 8〉 일본의 기혼 자녀의 특성별 부모의 기혼 자녀에 대한 지원

		부모의 기혼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												부모의 기혼 자녀에 대한 가사 및 돌봄 지원											
일본		남편 부모로부터 받은 경제적 지원				부인 부모로부터 받은 경제적 지원				남편 부모로부터 받은 가사 및 돌봄 지원				부인 부모로부터 받은 가사 및 돌봄 지원											
		전혀 해 주시지 않았다	가끔 해 주었다	자주 해 주었다	합계	전혀 해 주시지 않았다	가끔 해 주었다	자주 해 주었다	합계	전혀 해 주시지 않았다	가끔 해 주었다	자주 해 주었다	합계	전혀 해 주시지 않았다	가끔 해 주었다	자주 해 주었다	합계								
남편 연령	20대	9(26.47)	21(61.76)	4(11.76)	34(100)	7(21.59)	20(58.82)	7(21.59)	34(100)	10(29.41)	15(44.12)	9(26.47)	34(100)	9(27.27)	18(54.55)	6(18.18)	33(100)								
	30대	57(37.01)	87(56.49)	10(6.49)	154(100)	46(29.68)	89(57.42)	20(12.90)	155(100)	59(38.31)	63(40.91)	32(20.78)	154(100)	35(22.58)	81(52.26)	39(25.16)	155(100)								
	40대	59(40.97)	75(54.86)	6(4.17)	144(100)	45(31.25)	99(68.75)	6(4.17)	144(100)	77(53.47)	45(31.25)	22(15.28)	144(100)	65(44.89)	48(33.10)	32(22.07)	145(100)								
	50대	88(62.88)	47(35.61)	2(1.52)	132(100)	69(52.27)	61(46.21)	2(1.52)	132(100)	95(71.97)	25(18.94)	12(9.09)	132(100)	84(63.64)	30(22.73)	18(13.64)	132(100)								
			$\chi^2 = 30.5599^{***}$			$\chi^2 = 40.9561^{***}$				$\chi^2 = 39.9898^{***}$				$\chi^2 = 55.5532^{***}$											
부인 연령	20대	11(25.00)	27(61.36)	6(13.64)	44(100)	8(18.18)	27(61.36)	9(20.45)	44(100)	14(31.82)	21(47.73)	9(20.45)	44(100)	9(20.93)	27(62.79)	7(16.28)	43(100)								
	30대	70(38.89)	98(54.44)	12(6.67)	180(100)	60(33.15)	109(56.91)	18(9.94)	181(100)	75(41.67)	70(38.89)	35(19.44)	180(100)	51(28.18)	86(47.51)	44(24.31)	181(100)								
	40대	71(46.10)	80(51.95)	3(1.95)	154(100)	50(32.47)	98(63.64)	6(3.90)	154(100)	90(58.44)	40(25.97)	24(15.58)	154(100)	73(47.10)	49(31.61)	32(21.29)	155(100)								
	50대	56(65.12)	29(33.72)	1(1.16)	86(100)	49(56.98)	35(40.70)	2(2.33)	86(100)	62(72.09)	17(19.77)	7(8.14)	86(100)	60(69.77)	15(17.44)	11(12.79)	86(100)								
			$\chi^2 = 33.2843^{***}$			$\chi^2 = 57.7066^{***}$				$\chi^2 = 32.0995^{***}$				$\chi^2 = 56.5154^{***}$											
남편 월평균 수입	350만원 미만	36(39.56)	49(53.85)	6(6.59)	91(100)	28(30.77)	51(56.04)	12(13.19)	91(100)	40(43.96)	39(42.66)	18(19.78)	91(100)	30(33.33)	39(43.33)	21(23.23)	90(100)								
	550만원 미만	44(37.61)	66(56.41)	7(5.98)	117(100)	34(29.06)	73(62.39)	10(8.55)	117(100)	56(47.86)	41(35.04)	20(17.09)	117(100)	51(43.59)	50(42.74)	10(13.68)	117(100)								
	750만원 미만	38(43.68)	44(50.57)	5(5.75)	87(100)	28(32.18)	52(59.77)	7(8.05)	87(100)	45(51.72)	29(33.33)	13(14.94)	87(100)	31(35.63)	35(40.23)	21(24.14)	87(100)								
	750만원 이상	51(62.20)	30(36.59)	1(1.22)	82(100)	45(53.57)	38(45.24)	1(1.19)	84(100)	54(65.85)	22(26.83)	7(8.32)	82(100)	46(54.76)	28(32.88)	15(17.86)	84(100)								
			$\chi^2 = 14.7458^*$			$\chi^2 = 20.7317^{**}$				$\chi^2 = 10.8579$				$\chi^2 = 13.4241^*$											
부인 월평균 수입	수입 없음	58(40.28)	76(52.78)	10(6.94)	144(100)	48(32.66)	82(56.55)	20(13.79)	145(100)	69(47.92)	54(37.50)	21(14.58)	144(100)	55(38.19)	59(40.97)	30(20.83)	144(100)								
	150만원 미만	72(50.35)	65(45.45)	6(4.20)	143(100)	54(37.70)	84(58.74)	5(3.50)	143(100)	86(60.14)	35(24.48)	22(15.38)	143(100)	68(47.55)	53(37.06)	22(15.38)	143(100)								
	150만원 이상	44(46.32)	48(50.53)	3(3.16)	95(100)	41(42.71)	50(52.08)	5(5.21)	96(100)	46(48.42)	31(32.63)	18(18.95)	95(100)	38(39.58)	38(39.58)	20(20.83)	96(100)								
			$\chi^2 = 4.3482$			$\chi^2 = 14.2874^{**}$				$\chi^2 = 7.1262$				$\chi^2 = 3.3790$											
	장남/장녀 이외	125(46.82)	128(47.94)	14(5.24)	267(100)	99(35.23)	159(56.58)	28(10.19)	281(100)	143(53.56)	81(30.34)	49(18.10)	267(100)	116(41.43)	103(36.79)	61(21.79)	280(100)								
장남/장녀	88(42.13)	106(53.81)	8(4.00)	197(100)	68(35.05)	104(56.63)	12(6.32)	184(100)	98(49.75)	67(34.01)	32(16.24)	197(100)	77(41.62)	74(40.30)	34(18.38)	185(100)									
남편/부인 출생 순위	있음	199(45.23)	226(59.91)	17(3.80)	442(100)	162(36.57)	246(55.53)	35(7.90)	443(100)	231(52.50)	140(31.82)	69(15.68)	442(100)	185(41.70)	167(37.70)	91(20.54)	443(100)								
	없음	9(37.50)	10(41.67)	5(20.83)	24(100)	3(12.50)	17(68.75)	0(0.00)	22(100)	10(41.67)	8(33.33)	6(25.00)	24(100)	8(33.33)	10(41.67)	4(16.67)	24(100)								
			$\chi^2 = 14.5112^{**}$			$\chi^2 = 4.6080$				$\chi^2 = 1.7532$				$\chi^2 = 0.5355$											
	맞벌이 여부	71(38.38)	101(54.59)	13(7.03)	185(100)	59(31.72)	105(56.45)	22(11.83)	186(100)	91(49.19)	67(36.22)	27(14.59)	185(100)	70(37.84)	76(41.08)	39(21.08)	185(100)								
	맞벌이	157(49.10)	139(47.67)	9(3.23)	297(100)	108(38.71)	158(56.63)																		

2) 기혼 자녀의 특성별 부모의 기혼 자녀에 대한 지원 양상

〈표 7〉과 〈표 8〉은 기혼 자녀의 특성별 부모의 기혼 자녀에 대한 지원 양상을 나타낸 것이다. 먼저 한국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표 7〉 참조), 남편 연령과 부인 연령별로 부모의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 가사 및 돌봄 지원 빈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지원에 있어서는 남편의 연령 및 부인의 연령이 낮은 집단은 그룹 3의 응답 비율이 가장 높고 그룹 1의 응답 비율이 가장 낮았다. 이는 남편 부모 및 부인 부모에 대해서 동일한 경향을 보였다. 남편 부모로부터 받은 가사 및 돌봄 지원은 남편의 연령이 낮은 집단에서 그룹 3의 응답 비율이 높았다. 부인 부모로부터의 가사 및 돌봄 지원은 남편 연령이 20대 및 30대의 집단에서 그룹 3의 응답 비율이 높았다. 한편 부인 연령이 20대 및 30대의 집단에서 남편 부모 및 부인 부모로부터의 가사 및 돌봄 지원 빈도가 높은 그룹 3의 응답 비율이 높았는데 자녀 양육 시기에 있는 기혼 자녀에 대한 지원일 가능성을 추측해 볼 수 있다.

남편의 월평균 수입이 높은 집단은 남편 부모 및 부인 부모로부터의 경제적 지원 빈도가 높은 그룹 3의 응답 비율이 낮았다. 남편이 장남인 집단은 장남이 아닌 집단에 비해서 남편 부모로부터의 경제적 지원을 자주 받은 그룹 3의 응답 비율은 높은 반면, 가사 및 돌봄 지원에 있어서는 장남 여부별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맞벌이인 경우 남편 부모로부터의 가사 및 돌봄 지원의 지원 빈도가 높았다.

〈표 8〉은 일본의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남편 연령, 부인 연령, 남편의 연령군 수입에 따른 부모의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 가사 및 돌봄 지원 양상은 한국의 결과와 동일하였다. 일본의 분석에서만 유의차가 인정된 결과는 부인의 연령군 수입 및 남편의 형제자매 유무였다. 부인의 수입이 없는 집단에서는 부인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 빈도

가 높은 그룹 3의 응답 비율이 높았다. 남편이 외동인 집단이 남편 부모로부터의 경제적 지원 빈도가 높은 그룹 3의 응답 비율이 높았다. 맞벌이가 아닌 집단이 맞벌이인 집단보다 남편 부모로부터의 경제적 지원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로부터 기혼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차이를 가져오는 요인 중 한국과 일본의 특성을 드러낸 결과는 한국은 장남 유무가 자신의 부모로부터의 경제적 지원의 차이를 가져오는 반면 일본은 형제자매 유무가 관여하고 있었다.

3) 부모의 특성별 기혼 자녀의 부모에 대한 지원 양상

본 절에서는 부모의 특성별 기혼 자녀의 부모에 대한 지원 양상을 살펴보았다(〈표 9〉, 〈표 10〉 참조). 먼저 한국의 결과를 살펴보면, 부인 부모의 취업 형태별로 부인 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 빈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양친 모두 취업인 집단에 서는 경제적 지원 빈도가 가장 낮은 그룹 1의 응답 비율이 높은 반면, 부친만 취업인 경우에는 다른 집단에 비해서 그룹 3의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다. 한국은 부모의 특성과 기혼 자녀의 부모에 대한 가사 및 돌봄 지원과는 관계가 없었다.

일본의 결과를 보면 남편 부모의 생존 여부가 남편 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 빈도 및 가사 및 돌봄 지원 빈도와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친 모두 생존해 있는 집단에 비해서 부친만 생존 혹은 모친만 생존해 있는 집단이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는 그룹 1의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다. 부인 모친의 건강 상태가 나쁜 집단은 그룹 1의 응답 비율은 낮고 그룹 3의 응답 비율은 높았다.

기혼 자녀의 부모에 대한 가사 및 돌봄 지원은 한국에서는 부모의 특성보다 자녀의 특성에 의해 달라지는 특징을 보였다.

〈표 9〉 한국의 부모 특성별 기혼 자녀의 부모에 대한 지원

단위: 빈도(%)

한국		기혼 자녀의 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								기혼 자녀의 부모에 대한 가사 및 돌봄 지원							
		남편 부모				부인 부모				남편 부모				부인 부모			
		전혀 해 드리지 않았다	가끔 해 드렸다	자주 해 드렸다	합계	전혀 해 드리지 않았다	가끔 해 드렸다	자주 해 드렸다	합계	전혀 해 드리지 않았다	가끔 해 드렸다	자주 해 드렸다	합계	전혀 해 드리지 않았다	가끔 해 드렸다	자주 해 드렸다	합계
부모 생존 여부	양친 모두 생존	15(5.14)	187(64.04)	90(30.82)	292(100)	3(0.23)	238(70.83)	67(19.94)	336(100)	23(7.88)	198(67.81)	71(24.32)	292(100)	48(14.29)	249(74.11)	39(11.61)	336(100)
	부친만 생존	2(0.53)	14(73.68)	3(15.79)	19(100)	4(12.12)	24(72.73)	5(15.15)	33(100)	1(5.26)	13(68.42)	5(26.32)	19(100)	5(15.15)	23(69.70)	5(15.15)	33(100)
	모친만 생존	13(5.5)	150(60.00)	81(34.47)	235(100)	18(10.06)	131(73.18)	30(16.76)	179(100)	31(13.19)	150(68.83)	54(22.98)	235(100)	21(11.73)	135(75.42)	23(12.85)	179(100)
		$\chi^2 = 3.8071$				$\chi^2 = 1.2568$				$\chi^2 = 4.5805$				$\chi^2 = 1.1557$			
부모 취업 형태	양친 모두 취업	6(0.00)	43(71.67)	11(18.33)	60(100)	13(17.11)	55(72.37)	8(10.53)	76(100)	5(8.33)	40(66.67)	15(25.00)	60(100)	15(19.74)	55(72.37)	6(7.89)	76(100)
	부친만 취업	4(6.56)	39(63.93)	18(29.51)	61(100)	5(6.67)	48(64.00)	22(29.33)	75(100)	3(4.92)	44(72.13)	14(22.95)	61(100)	6(8.00)	57(76.00)	12(16.00)	75(100)
	모친만 취업	0(0.00)	7(58.33)	5(41.67)	12(100)	1(11.11)	7(77.78)	1(11.11)	9(100)	0(0.00)	9(75.00)	3(25.00)	12(100)	3(33.33)	5(55.56)	1(11.11)	9(100)
	양친 모두 비취업	5(3.14)	98(61.64)	56(35.22)	159(100)	12(6.86)	127(72.57)	36(20.57)	175(100)	15(9.43)	105(66.04)	39(24.53)	159(100)	24(13.71)	131(74.80)	20(11.43)	175(100)
		$\chi^2 = 10.1225$				$\chi^2 = 14.4425^*$				$\chi^2 = 2.5368$				$\chi^2 = 8.6106$			
부친 거주 상황	기혼 자녀와 동거	3(9.68)	19(61.29)	9(29.03)	31(100)	4(11.11)	26(72.22)	6(16.67)	36(100)	1(3.23)	18(58.06)	12(38.71)	31(100)	7(9.44)	27(75.00)	2(5.56)	36(100)
	미혼 자녀와 동거	1(2.78)	25(69.44)	10(27.78)	36(100)	4(5.26)	58(76.32)	14(18.42)	76(100)	1(2.78)	30(83.33)	5(13.89)	36(100)	7(9.21)	62(81.58)	7(9.21)	76(100)
	배우자와 혹은 혼자	13(5.56)	150(60.00)	71(30.34)	234(100)	26(10.44)	172(69.08)	51(20.48)	249(100)	22(9.40)	157(67.09)	55(23.50)	234(100)	38(15.26)	177(71.08)	34(13.65)	249(100)
		$\chi^2 = 1.6889$				$\chi^2 = 2.5285$				$\chi^2 = 8.7796$				$\chi^2 = 5.3864$			
모친 거주 상황	기혼 자녀와 동거	6(6.06)	64(64.65)	29(29.29)	99(100)	10(10.20)	73(74.49)	15(15.31)	98(100)	11(11.11)	62(62.63)	26(26.26)	99(100)	14(14.29)	74(75.51)	10(10.20)	98(100)
	미혼 자녀와 동거	2(3.64)	34(61.82)	19(34.55)	55(100)	7(7.45)	69(73.40)	18(19.15)	94(100)	4(7.27)	41(74.55)	10(18.18)	55(100)	12(12.77)	72(76.60)	10(10.64)	94(100)
	배우자와 혹은 혼자	2(0.56)	21(46.45)	12(33.90)	35(100)	3(2.10)	22(70.00)	6(21.90)	31(100)	3(8.10)	23(65.82)	8(32.45)	35(100)	4(21.38)	23(73.57)	4(13.06)	31(100)
		$\chi^2 = 1.1772$				$\chi^2 = 1.6496$				$\chi^2 = 2.3646$				$\chi^2 = 0.8871$			
부친 건강 상태	나쁨	7(7.14)	65(66.33)	26(26.53)	98(100)	9(6.87)	90(73.28)	26(19.85)	131(100)	6(6.12)	67(68.57)	25(25.51)	98(100)	21(16.03)	93(70.99)	17(12.98)	131(100)
	중간	4(4.76)	53(61.00)	27(32.14)	84(100)	10(8.85)	84(74.34)	19(16.81)	113(100)	10(11.90)	56(66.67)	18(21.43)	84(100)	14(12.39)	92(81.42)	7(6.19)	113(100)
	좋음	6(4.65)	83(64.34)	40(31.01)	129(100)	15(12.10)	82(66.13)	27(21.77)	124(100)	8(6.20)	88(68.22)	33(25.58)	129(100)	17(13.71)	87(70.16)	20(16.13)	124(100)
		$\chi^2 = 1.3792$				$\chi^2 = 3.3457$				$\chi^2 = 3.0629$				$\chi^2 = 6.8979$			
모친 건강 상태	나쁨	11(5.19)	131(61.79)	70(33.02)	212(100)	18(8.07)	157(70.40)	48(21.52)	223(100)	16(7.55)	136(64.15)	60(28.30)	212(100)	31(13.90)	160(71.75)	32(14.35)	223(100)
	중간	10(6.21)	102(63.35)	49(30.43)	161(100)	15(9.68)	116(74.84)	24(15.48)	155(100)	21(13.04)	103(63.98)	37(22.98)	161(100)	21(13.55)	120(77.42)	14(9.03)	155(100)
	좋음	7(4.58)	95(62.09)	51(33.33)	153(100)	16(11.68)	96(70.07)	25(18.25)	137(100)	17(11.11)	108(70.59)	28(18.30)	153(100)	17(12.41)	104(75.91)	16(11.68)	137(100)
		$\chi^2 = 0.7024$				$\chi^2 = 3.2883$				$\chi^2 = 7.3411$				$\chi^2 = 2.7526$			

$p < .05$, * $p < .01$, ** $p < .001$

〈표 10〉 일본의 부모 특성별 기혼 자녀의 부모에 대한 지원

단위: 빈도(%)

일본		기혼 자녀의 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								기혼 자녀의 부모에 대한 가사 및 돌봄 지원							
		남편 부모				부인 부모				남편 부모				부인 부모			
		전혀 해 드리지 않았다	가끔 해 드렸다	자주 해 드렸다	합계	전혀 해 드리지 않았다	가끔 해 드렸다	자주 해 드렸다	합계	전혀 해 드리지 않았다	가끔 해 드렸다	자주 해 드렸다	합계	전혀 해 드리지 않았다	가끔 해 드렸다	자주 해 드렸다	합계
부모 생존 여부	양친 모두 생존	16(57.84)	114(39.72)	7(2.44)	287(100)	18(58.71)	125(40.32)	3(0.97)	310(100)	12(44.00)	156(54.55)	4(1.40)	286(100)	14(45.16)	159(51.29)	11(3.55)	310(100)
	부친만 생존	13(52.00)	10(40.00)	2(8.00)	25(100)	13(59.09)	8(36.36)	1(4.55)	22(100)	12(48.00)	11(44.00)	2(8.00)	25(100)	6(27.27)	13(59.09)	3(13.64)	22(100)
	모친만 생존	6(14.03)	80(52.63)	11(27.41)	152(100)	6(14.51)	64(47.76)	5(13.73)	134(100)	54(35.53)	88(57.89)	10(6.58)	152(100)	50(37.31)	74(55.22)	10(7.46)	134(100)
		$\chi^2 = 16.0279^{**}$				$\chi^2 = 7.7226$				$\chi^2 = 12.0906^{**}$				$\chi^2 = 9.0303$			
부모 취업 형태	양친 모두 취업	5(6.27)	27(32.53)	1(1.20)	83(100)	4(2(6.17)	26(38.24)	0(0.00)	68(100)	4(50.00)	40(48.78)	1(1.22)	82(100)	31(45.59)	36(52.94)	1(1.47)	68(100)
	부친만 취업	35(71.43)	13(26.53)	1(2.04)	49(100)	42(60.87)	27(39.13)	0(0.00)	69(100)	26(53.06)	23(46.94)	0(0.00)	49(100)	33(47.83)	33(47.83)	3(4.35)	69(100)
	모친만 취업	6(46.15)	7(53.85)	0(0.00)	13(100)	9(52.94)	7(41.18)	1(5.88)	17(100)	8(61.54)	5(38.46)	0(0.00)	13(100)	7(41.18)	10(58.82)	0(0.00)	17(100)
	양친 모두 비취업	65(49.24)	63(47.73)	3(3.03)	132(100)	80(56.34)	62(43.66)	0(0.00)	142(100)	45(34.09)	85(64.39)	2(1.52)	132(100)	63(44.37)	72(50.70)	7(4.93)	142(100)
		$\chi^2 = 11.6565$				$\chi^2 = 17.2309^{**}$				$\chi^2 = 10.2775$				$\chi^2 = 2.7737$			
부친 거주 상황	기혼 자녀와 동거	34(58.62)	22(37.93)	2(3.45)	58(100)	42(58.33)	30(41.67)	0(0.00)	72(100)	25(43.10)	33(56.90)	0(0.00)	58(100)	34(47.22)	34(47.22)	4(5.56)	72(100)
	미혼 자녀와 동거	26(70.27)	11(29.73)	0(0.00)	37(100)	16(51.61)	14(45.16)	1(3.23)	31(100)	18(50.00)	18(50.00)	0(0.00)	36(100)	16(51.61)	13(41.94)	2(6.45)	31(100)
	배우자와 혹은 혼자	105(56.15)	76(40.64)	6(3.21)	187(100)	123(62.12)	74(37.37)	10(5.1)	198(100)	80(42.78)	102(54.55)	5(2.67)	187(100)	84(42.42)	108(54.55)	6(3.03)	198(100)
		$\chi^2 = 3.2312$				$\chi^2 = 4.7193$				$\chi^2 = 3.0753$				$\chi^2 = 3.1982$			
모친 거주 상황	기혼 자녀와 동거	47(47.96)	45(45.92)	6(6.12)	98(100)	64(54.70)	51(43.59)	2(1.71)	117(100)	41(41.84)	54(55.10)	3(3.06)	98(100)	49(41.88)	63(53.85)	5(4.27)	117(100)
	미혼 자녀와 동거	29(69.05)	13(30.95)	0(0.00)	42(100)	23(53.49)	19(44.19)	1(2.33)	43(100)	22(53.66)	19(46.34)	0(0.00)	41(100)	22(51.16)	18(41.86)	3(6.98)	43(100)
	배우자와 혹은 혼자	131(52.40)	110(44.00)	9(3.60)	250(100)	138(57.26)	100(41.49)	3(1.24)	241(100)	101(40.40)	142(56.80)	7(2.80)	250(100)	101(41.91)	130(53.94)	10(4.15)	241(100)
		$\chi^2 = 7.1649$				$\chi^2 = 0.6041$				$\chi^2 = 3.3665$				$\chi^2 = 2.4944$			
부친 건강 상태	나쁨	30(53.57)	24(42.86)	2(3.57)	56(100)	38(55.07)	30(43.48)	1(1.45)	69(100)	22(38.60)	33(57.89)	2(3.51)	57(100)	26(37.68)	37(53.62)	6(8.70)	69(100)
	중간	68(56.20)	48(39.67)	5(4.13)	121(100)	80(57.97)	56(40.58)	2(1.45)	138(100)	53(43.80)	66(54.55)	2(1.65)	121(100)	66(47.83)	67(48.55)	5(3.62)	138(100)
	좋음	80(61.07)	49(37.40)	2(1.53)	131(100)	75(61.98)	46(38.02)	0(0.00)	121(100)	61(46.92)	67(51.54)	2(1.54)	130(100)	53(43.80)	65(53.72)	3(2.48)	121(100)
		$\chi^2 = 2.3336$				$\chi^2 = 2.4734$				$\chi^2 = 1.8193$				$\chi^2 = 5.6975$			
모친 건강 상태	나쁨	44(44.90)	47(47.96)	7(7.14)	98(100)	49(51.58)	43(45.26)	3(3.16)	95(100)	34(34.34)	58(58.59)	7(7.07)	99(100)	28(29.47)	60(63.16)	7(7.37)	95(100)
	중간	86(50.00)	80(46.51)	6(3.49)	172(100)	108(59.34)	70(38.40)	4(2.20)	182(100)	72(41.80)	96(55.81)	4(2.33)	172(100)	80(47.25)	85(46.70)	11(6.40)	182(100)
	좋음	93(57.60)	65(39.88)	5(3.07)	163(100)	90(55.21)	72(44.17)	1(0.61)	163(100)	72(44.44)	87(53.70)	3(1.85)	162(100)	76(46.63)	84(51.53)	3(1.84)	163(100)
		$\chi^2 = 5.8380$				$\chi^2 = 4.0574$				$\chi^2 = 7.7322$				$\chi^2 = 13.4343^{**}$			

$p < .05$, * $p < .01$, ** $p < .001$

남편 부모 및 부인 부모와의 지원 양상의 특징과 기혼 자녀의 결혼 생활 만족도와의 관계

〈표 11〉 한국의 부모 특성별 부모의 기혼 자녀에 대한 지원

한국		부부의 기혼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												부부의 기혼 자녀에 대한 가사 및 돌봄 지원											
		남편 부모로부터 받은 경제적 지원				부인 부모로부터 받은 경제적 지원				남편 부모로부터 받은 가사 및 돌봄 지원				부인 부모로부터 받은 가사 및 돌봄 지원											
		전혀 해 주시지 않았다	가끔 해 주셨다	자주 해 주셨다	합계	전혀 해 주시지 않았다	가끔 해 주셨다	자주 해 주셨다	합계	전혀 해 주시지 않았다	가끔 해 주셨다	자주 해 주셨다	합계	전혀 해 주시지 않았다	가끔 해 주셨다	자주 해 주셨다	합계								
부모 생존 여부	양친 모두 생존	88(30.03)	161(54.95)	44(15.02)	293(100)	101(30.06)	194(57.74)	41(12.20)	336(100)	103(35.15)	109(37.20)	81(27.65)	293(100)	98(29.17)	131(38.99)	107(31.85)	336(100)								
	부친만 생존	9(47.37)	1052(63)	0(0.00)	191(100)	15(45.45)	175(51.52)	13(38.03)	33(100)	12(63.16)	3(15.79)	4(21.05)	19(100)	19(57.58)	9(27.27)	5(15.15)	33(100)								
	모친만 생존	110(46.81)	114(48.51)	11(4.68)	235(100)	76(42.46)	97(54.19)	6(3.35)	179(100)	109(46.38)	55(23.40)	71(30.21)	235(100)	70(39.11)	68(35.99)	41(22.91)	179(100)								
		$\chi^2 = 27.9424^{***}$				$\chi^2 = 18.3701^{**}$				$\chi^2 = 16.6044^{**}$				$\chi^2 = 15.5208^{**}$											
부모 취업 형태	양친 모두 취업	16(26.67)	30(50.00)	14(23.33)	60(100)	23(30.26)	42(55.26)	11(14.47)	76(100)	24(40.00)	24(40.00)	12(20.00)	60(100)	31(40.79)	28(36.84)	17(22.37)	76(100)								
	부친만 취업	12(19.67)	37(60.66)	12(19.67)	61(100)	18(24.00)	40(53.33)	17(22.67)	75(100)	14(22.95)	23(37.70)	24(39.34)	61(100)	10(13.33)	27(36.00)	38(50.67)	75(100)								
	모친만 취업	3(25.00)	8(66.67)	1(8.33)	12(100)	2(22.22)	6(66.67)	1(11.11)	9(100)	3(25.00)	4(33.33)	5(41.67)	12(100)	3(33.33)	3(33.33)	3(33.33)	9(100)								
		$\chi^2 = 11.2002$				$\chi^2 = 13.3856^*$				$\chi^2 = 9.6901$				$\chi^2 = 21.9743^{***}$											
부친 거주 상황	기혼 자녀와 동거	10(32.26)	19(61.29)	2(6.45)	31(100)	8(22.22)	24(66.67)	4(11.11)	36(100)	10(32.26)	11(35.48)	10(32.26)	31(100)	12(33.33)	14(38.89)	10(27.78)	36(100)								
	미혼 자녀와 동거	11(30.56)	18(50.00)	7(19.44)	36(100)	15(19.74)	47(61.84)	14(18.42)	76(100)	13(36.11)	15(41.67)	8(22.22)	36(100)	15(19.74)	32(42.11)	20(38.16)	76(100)								
	배우자와 혹은 혼자	75(31.91)	128(54.7)	32(13.62)	235(100)	89(35.74)	136(54.62)	24(9.64)	249(100)	89(37.87)	84(35.74)	62(26.38)	235(100)	86(34.54)	91(36.55)	72(28.92)	249(100)								
		$\chi^2 = 2.4871$				$\chi^2 = 10.8132^*$				$\chi^2 = 1.1901$				$\chi^2 = 6.3438$											
모친 거주 상황	기혼 자녀와 동거	4(6.46)	49(49.49)	4(4.04)	99(100)	39(39.80)	53(54.08)	6(6.12)	98(100)	44(44.44)	24(24.24)	31(31.31)	99(100)	36(36.36)	32(32.65)	30(30.61)	98(100)								
	미혼 자녀와 동거	19(34.55)	20(37.73)	7(12.73)	55(100)	21(22.34)	49(53.05)	15(15.96)	94(100)	22(40.00)	20(36.36)	13(23.64)	55(100)	20(21.29)	42(44.68)	32(34.04)	94(100)								
	배우자와 혹은 혼자	130(36.62)	186(52.39)	39(10.99)	355(100)	113(35.99)	175(55.75)	25(8.28)	314(100)	140(39.44)	113(31.83)	102(28.73)	355(100)	108(34.39)	122(38.85)	84(26.75)	314(100)								
		$\chi^2 = 6.6519$				$\chi^2 = 11.5441^*$				$\chi^2 = 3.2646$				$\chi^2 = 7.8001$											
부친 건강 상태	나쁨	3(30.30)	58(58.59)	11(11.11)	99(100)	5(42.75)	64(48.85)	11(8.40)	131(100)	43(43.43)	33(33.33)	23(23.23)	99(100)	52(39.69)	47(35.88)	32(24.43)	131(100)								
	중간	29(34.52)	46(54.76)	9(10.71)	84(100)	25(22.12)	74(65.49)	14(12.39)	113(100)	31(36.50)	34(40.48)	19(22.62)	84(100)	26(23.01)	47(41.52)	30(35.40)	113(100)								
	좋음	38(29.46)	67(51.94)	24(18.60)	129(100)	34(27.42)	73(58.87)	17(13.71)	124(100)	41(31.78)	45(34.88)	43(33.33)	129(100)	38(30.65)	46(37.10)	40(32.26)	124(100)								
		$\chi^2 = 4.0667$				$\chi^2 = 13.8512^*$				$\chi^2 = 5.7720$				$\chi^2 = 8.5725$											
모친 건강 상태	나쁨	87(40.85)	109(51.17)	17(7.98)	213(100)	95(42.60)	113(50.67)	15(6.73)	223(100)	97(45.54)	60(28.17)	56(26.29)	213(100)	91(40.81)	78(34.98)	54(24.22)	223(100)								
	중간	57(35.40)	89(51.55)	21(13.04)	167(100)	43(27.74)	67(28.58)	15(9.68)	155(100)	59(36.65)	57(35.40)	45(27.95)	161(100)	43(24.74)	66(42.58)	46(29.68)	155(100)								
	좋음	54(35.20)	82(53.99)	17(11.11)	153(100)	39(28.47)	81(59.12)	17(12.41)	137(100)	56(36.00)	46(30.07)	51(33.33)	153(100)	34(24.82)	55(40.15)	48(35.04)	137(100)								
		$\chi^2 = 3.4746$				$\chi^2 = 13.3636^*$				$\chi^2 = 5.7065$				$\chi^2 = 13.2730^*$											

p < .05, ** p < .01, *** p < .001

〈표 12〉 일본의 부모 특성별 부모의 기혼 자녀에 대한 지원

일본		부부의 기혼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												부부의 기혼 자녀에 대한 가사 및 돌봄 지원											
		남편 부모로부터 받은 경제적 지원				부인 부모로부터 받은 경제적 지원				남편 부모로부터 받은 가사 및 돌봄 지원				부인 부모로부터 받은 가사 및 돌봄 지원											
		전혀 해 주시지 않았다	가끔 해 주셨다	자주 해 주셨다	합계	전혀 해 주시지 않았다	가끔 해 주셨다	자주 해 주셨다	합계	전혀 해 주시지 않았다	가끔 해 주셨다	자주 해 주셨다	합계	전혀 해 주시지 않았다	가끔 해 주셨다	자주 해 주셨다	합계								
부모 생존 여부	양친 모두 생존	109(37.98)	161(56.10)	17(5.92)	287(100)	101(32.69)	178(57.61)	30(9.71)	309(100)	128(44.60)	106(36.93)	53(18.47)	287(100)	116(37.42)	126(40.65)	68(21.94)	310(100)								
	부친만 생존	15(60.00)	10(40.00)	0(0.00)	25(100)	9(40.91)	12(54.55)	1(4.55)	22(100)	20(80.00)	1(4.00)	4(16.00)	25(100)	17(80.95)	4(19.05)	0(0.00)	21(100)								
	모친만 생존	84(55.26)	63(41.45)	5(3.29)	152(100)	57(42.54)	73(54.48)	4(2.99)	134(100)	93(61.18)	41(26.97)	18(11.84)	152(100)	60(44.78)	47(35.07)	27(20.15)	134(100)								
		$\chi^2 = 15.4852^{**}$				$\chi^2 = 8.7508$				$\chi^2 = 21.5043^{***}$				$\chi^2 = 16.9570^{**}$											
부모 취업 형태	양친 모두 취업	23(28.05)	55(67.07)	4(4.88)	82(100)	21(30.88)	36(52.94)	11(16.18)	68(100)	31(57.80)	34(41.46)	17(20.73)	82(100)	20(29.41)	29(42.65)	19(27.94)	68(100)								
	부친만 취업	15(30.61)	30(61.22)	4(8.16)	49(100)	19(27.54)	38(55.07)	12(17.39)	69(100)	20(40.82)	16(32.65)	13(26.53)	69(100)	24(34.78)	32(46.38)	13(18.84)	69(100)								
	모친만 취업	5(38.46)	7(53.85)	1(7.69)	13(100)	5(29.41)	12(70.59)	0(0.00)	17(100)	7(53.85)	6(46.15)	0(0.00)	13(100)	5(29.41)	9(52.94)	3(17.65)	17(100)								
		$\chi^2 = 6.5578$				$\chi^2 = 13.2575^*$				$\chi^2 = 7.0585$				$\chi^2 = 6.9528$											
부친 거주 상황	기혼 자녀와 동거	25(43.10)	30(51.72)	3(5.17)	58(100)	28(39.44)	37(52.11)	6(8.45)	71(100)	31(53.45)	19(32.76)	8(13.79)	58(100)	33(45.83)	24(33.33)	15(20.83)	72(100)								
	미혼 자녀와 동거	7(18.92)	28(75.68)	2(5.41)	37(100)	11(35.48)	17(54.84)	3(9.68)	31(100)	12(32.43)	17(45.95)	8(21.62)	37(100)	10(32.26)	14(45.16)	7(22.58)	31(100)								
	배우자와 혹은 혼자	75(40.11)	101(54.01)	11(5.88)	187(100)	61(30.81)	117(59.09)	20(10.10)	198(100)	89(47.59)	63(33.69)	35(18.72)	187(100)	76(38.38)	85(42.93)	37(18.69)	198(100)								
		$\chi^2 = 7.0642$				$\chi^2 = 1.8373$				$\chi^2 = 4.5287$				$\chi^2 = 2.8306$											
모친 거주 상황	기혼 자녀와 동거	48(48.98)	46(46.94)	4(4.08)	99(100)	43(37.07)	65(56.03)	8(6.90)	116(100)	54(55.10)	31(31.63)	13(13.27)	98(100)	55(47.01)	35(29.91)	27(23.08)	117(100)								
	미혼 자녀와 동거	11(26.19)	29(69.05)	2(4.76)	42(100)	16(37.21)	22(51.16)	5(11.63)	43(100)	15(35.71)	18(42.86)	9(21.43)	42(100)	14(32.56)	21(48.84)	8(18.60)	43(100)								
	배우자와 혹은 혼자	107(42.80)	128(51.20)	15(6.00)	250(100)	80(33.20)	141(58.51)	20(8.30)	241(100)	124(49.60)	85(34.00)	31(16.40)	250(100)	86(35.68)	105(43.57)	50(20.75)	241(100)								
		$\chi^2 = 6.9692$				$\chi^2 = 1.6470$				$\chi^2 = 4.5780$				$\chi^2 = 73.9292^{***}$											
부친 건강 상태	나쁨	27(47.37)	25(43.86)	5(8.77)	57(100)	26(37.68)	34(49.28)	9(13.04)	69(100)	30(52.63)	16(28.07)	11(19.30)	57(100)	39(56.52)	17(24.64)	13(18.84)	69(100)								
	중간	50(41.32)	66(54.55)	5(4.13)	121(100)	43(31.39)	81(59.12)	13(9.49)	137(100)	64(52.89)	39(32.23)	18(14.88)	121(100)	54(39.42)	58(42.34)	25(18.25)	137(100)								
	좋음	44(33.59)	8(6.07)	7(5.34)	59(100)	39(32.23)	73(60.33)	9(7.44)	121(100)	52(39.69)	51(38.93)	28(21.37)	131(100)	38(31.40)	55(45.45)	28(23.14)	121(100)								
		$\chi^2 = 5.8386$				$\chi^2 = 3.0871$				$\chi^2 = 5.826$				$\chi^2 = 12.9689^*$											
모친 건강 상태	나쁨	52(52.53)	43(43.43)	4(4.04)	99(100)	37(38.95)	49(51.58)	9(9.47)	95(100)	65(65.66)	24(24.24)	10(10.10)	99(100)	55(57.89)	20(21.05)	20(21.05)	95(100)								
	중간	71(41.28)	92(53.49)	9(5.23)	172(100)	61(33.70)	105(58.01)	15(8.29)	181(100)	82(47.67)	63(36.63)	27(15.70)	172(100)	63(34.62)	81(44.51)	38(22.88)	181(100)								
	좋음	66(40.49)	88(53.99)	9(5.52)	163(100)	60(36.81)	93(57.06)	10(6.13)	163(100)	69(42.33)	60(36.81)	34(20.86)	163(100)	57(34.97)	70(42.94)	36(22.09)	163(100)								
		$\chi^2 = 4.2477$				$\chi^2 = 1.9924$				$\chi^2 = 14.9292^{**}$				$\chi^2 = 20.0148^{***}$											

p < .05, ** p < .01, *** p < .001

4) 부모의 특성별 부모의 기혼 자녀에 대한 지원
다음으로 부모의 특성별 부모의 기혼 자녀에 대한 지원을 <표 11>, <표 12>에 제시하였다. <표 11>에서 제시한 한국의 분석 결과 중 경제적 지원에 관해서 보면, 남편 부모 및 부인 부모 각각 양친 모두 생존해 있는 집단은 부모로부터의 경제적 지원이 자주 있는 그룹 3의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다. 남편 부모의 취업 형태가 양친 모두 취업인 집단에서 그룹 3의 응답 비율이 높았고 그 다음으로 부친만 취업인 집단의 그룹 3의 응답 비율이 높았다. 부인 부모의 경우 부친만 취업인 집단이 부모의 기혼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 가사 및 돌봄 지원 빈도가 높았다. 부인의 모친이 미취업 상태에서 결혼한 딸을 지원하고 있는 현실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또한, 부인의 부친 및 모친이 미혼자녀와 동거하고 있는 집단이 그룹 3의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다. 부인의 부친 및 모친의 건강 상태가 좋은 집단이 경제적 지원에 있어서 그룹 3의 응답 비율이 높았다.

한편, 부모로부터의 가사 및 돌봄 지원에 있어서 남편 부모의 경우는 모친만 생존해 있는 집단에서 그룹 3의 응답 비율이 높은 반면, 부인 부모의 경우는 양친 모두 생존해 있는 집단에서 그룹 3의 응답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인 모친의 건강 상태는 가사 및 돌봄 지원과도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모친의 건강 상태가 좋은 집단에서 그룹 3의 응답 비율이 높음이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표 12>에서 제시한 일본의 결과 중 경제적 지원을 보면, 남편 부모의 생존 여부 중 부친만 생존해 있는 집단에서 그룹 1의 응답 비율이 높은 반면, 양친 모두 생존해 있는 집단에서는 그룹 3의 응답 비율이 높았다. 한편, 부인의 양친 모두 생존해 있는 집단에서는 가사 및 돌봄 지원의 빈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부인 부모의 취업 형태는 양친 모두 취업인 집단 혹은 부친만 취업인 집단이 경제적 지원의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부인의 부친 및 모친의 건강 상태가 좋은 집단이 가사 및 돌봄 지원의 빈도가 높았다.

한국은 남편 부모 중 모친만 생존해 있는 경우 부모로부터의 가사 및 돌봄 지원 빈도가 가장 높았다. 한편, 부인 부모의 경우는 양친 모두 생존해 있는 집단에서 가사 및 돌봄 지원의 빈도가 가장 높다는 점은 한국과 일본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결과이다. 남편의 모친만 생존해 있을 경우, 가사 및 돌봄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기혼 자녀로부터의 경제적 지원이 있다고 추론해 볼 수 있다.

3. 기혼 자녀와 부모간의 지원 빈도별 결혼 생활 만족도

1) 기혼 자녀의 부모에 대한 지원 빈도별 결혼 생활 만족도

본 절에서는 기혼 자녀의 부모에 대한 지원과 기혼 자녀의 결혼 생활 만족도와의 관계를 분산분석을 통해 검증하였고 그 결과를 <표 13>에 제시하였다.

먼저 한국의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남편 부모 및 부인 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 빈도가 높은 그룹이 결혼 생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유의수준 10%에서 그 차이가 인정되었다. 부인 부모에 대한 가사 및 돌봄 지원 빈도가 높은 그룹이 결혼 생활 만족도가 높은 경향이 있었고 유의수준 10%에서 유의차가 인정되었다. 일본의 결과를 보면 전체적으로는 남편 부모에 대한 가사 및 돌봄 지원 빈도가 거의 없는 그룹의 결혼 생활 만족도가 높았으며 부인 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거의 없는 그룹의 결혼 생활 만족도가 높았다.

한국의 남녀별 분석 결과, 남성은 자신의 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 빈도가 높은 그룹(그룹 3), 부인 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 빈도가 높은 그룹(그룹 3)이 결혼 생활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은 자신의 부모에 대한 가사 및 돌봄 지원 빈도가 높은 그룹(그룹 3)이 결혼 생활 만

〈표 13〉 기혼 자녀의 부모에 대한 지원 빈도와 기혼 자녀의 결혼 생활 만족도

		한국						일본					
		남편 부모에 대한 지원 빈도에 따른 기혼 자녀의 결혼 생활 만족도 (평균점)			부인 부모에 대한 지원 빈도에 따른 기혼 자녀의 결혼 생활 만족도 (평균점)			남편 부모에 대한 지원 빈도에 따른 기혼 자녀의 결혼 생활 만족도 (평균점)			부인 부모에 대한 지원 빈도에 따른 기혼 자녀의 결혼 생활 만족도 (평균점)		
		합계	남성	여성	합계	남성	여성	합계	남성	여성	합계	남성	여성
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 빈도	거의 없음	3.52 _a	3.14 _a	3.64	3.70 _{ab}	3.86 _a	3.52	3.80	4.16	3.57	3.85 _a	4.12	3.61 _{ab}
	가끔	3.77 _{ab}	3.94 _b	3.63	3.76 _a	3.93 _a	3.62	3.75	3.95	3.51	3.66 _b	3.94	3.41 _a
	자주	3.89 _b	4.15 _b	3.73	3.96 _b	4.38 _b	3.82	3.75	3.93	3.33	4.33 _{ab}	4.67	4.17 _b
	F값	†	*	n.s	†	*	n.s	n.s	n.s	n.s	*	n.s	†
부모에 대한 가사 및 돌봄 지원 빈도	거의 없음	3.72	3.96	3.53	3.68 _a	3.95	3.39 _a	3.91 _a	4.34 _a	3.56	3.89 _a	4.18 _a	3.51
	가끔	3.78	3.94	3.66	3.78 _{ab}	3.95	3.64 _{ab}	3.69 _b	3.85 _b	3.55	3.72 _{ab}	3.91 _b	3.57
	자주	3.87	4.09	3.71	4.02 _b	4.36	3.92 _a	3.44 _{ab}	3.89 _{ab}	2.86	3.50 _b	4.50 _{ab}	3.41
	F값	n.s	n.s	n.s	†	n.s	*	*	***	n.s	†	*	n.s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Scheffe 검정에 따른 다중비교를 실시함.

족도가 가장 높았다. 일본의 남녀별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남성은 남편 부모 및 부인 부모에 대한 가사 및 돌봄 지원 빈도가 거의 없는 그룹(그룹 1)이 결혼 생활 만족도가 가장 높은 반면 여성은 자신의 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 빈도가 자주 있는 그룹(그룹 3)의 결혼 생활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기혼 자녀의 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 빈도는 한국 남성과 일본 여성의 결혼 생활 만족도의 차이를 가져오는 요인이었는데, 한국 남성은 자신의 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따른 차이뿐만 아니라 부인 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따른 차이가 있었다. 또한, 기혼 자녀의 결혼 생활 만족도는 한국 여성은 자신의 부모에 대한 가사 및 돌봄 지원에 따라 차이가 있는 반면, 일본 여성은 자신의 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2) 부모의 기혼 자녀에 대한 지원 빈도와 기혼 자녀의 결혼 생활 만족도

다음으로 부모의 기혼 자녀에 대한 지원 빈도에 따라 결혼 생활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표 14〉 참조). 한국의 경우 전체적으로 볼 때,

남편 부모로부터의 경제적 지원 빈도 및 부인 부모로부터의 경제적 지원 빈도가 높은 그룹이 결혼 생활 만족도가 높았다. 남편 부모로부터의 가사 및 돌봄 지원 빈도별 결혼 생활 만족도의 차이도 통계적 유의차가 인정되었는데 가사 및 돌봄 지원이 거의 없는 그룹보다 가끔 있는 그룹의 결혼 생활 만족도가 높았으나 자주 있는 그룹은 가끔 있는 그룹보다 결혼 생활 만족도가 더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부인 부모로부터의 경제적 지원이 자주 있는 그룹이 결혼 생활 만족도가 높았다. 남녀 별로 살펴보면, 남성 및 여성 모두 남편 부모로부터의 경제적 지원 빈도가 높은 그룹이 결혼 생활 만족도가 높았다. 이 경우 결혼 생활 만족도 수준은 여성보다 남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인 부모로부터의 경제적 지원 빈도가 높은 그룹의 남성의 결혼 생활 만족도가 높았다. 여성의 결혼 생활 만족도는 남편 부모로부터 가끔씩 경제적 지원이 있는 그룹에서 가장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 한편, 가사 및 돌봄 지원에 대해서는 남편 부모로부터의 가사 및 돌봄 지원 빈도별로 여성의 결혼 생활 만족도에 차이가 있었는데

〈표 14〉 부모의 기혼 자녀에 대한 지원 빈도와 기혼 자녀의 결혼 생활 만족도

		한국						일본					
		남편 부모로부터 받은 지원 빈도에 따른 기혼 자녀의 결혼 생활 만족도 (평균점)			부인 부모로부터 받은 지원 빈도에 따른 기혼 자녀의 결혼 생활 만족도 (평균점)			남편 부모로부터 받은 지원 빈도에 따른 기혼 자녀의 결혼 생활 만족도 (평균점)			부인 부모로부터 받은 지원 빈도에 따른 기혼 자녀의 결혼 생활 만족도 (평균점)		
		합계	남성	여성	합계	남성	여성	합계	남성	여성	합계	남성	여성
부모로부터 받은 경제적 지원 빈도	거의 없음	3.64 _a	3.86 _a	3.49 _a	3.67 _a	3.92 _a	3.49 _a	3.81	4.19 _a	3.53	3.93 _a	4.16	3.66
	가끔	3.85 _b	3.97 _{ab}	3.76 _b	3.83 _{ab}	3.93 _a	3.77 _b	3.76	3.96 _b	3.56	3.71 _b	3.97	3.49
	자주	4.09 _b	4.37 _b	3.82 _{ab}	4.00 _b	4.45 _b	3.62 _{ab}	3.59	3.82 _{ab}	3.36	3.65 _{ab}	4.09	3.43
	F값	**	**	**	*	*	*	n,s	†	n,s	*	n,s	n,s
부모로부터 받은 가사 및 돌봄 지원 빈도	거의 없음	3.66 _a	3.90	3.51 _a	3.68	3.96	3.50 _a	3.73	4.12	3.43	3.73 _a	4.03	3.46
	가끔	4.00 _b	4.01	3.98 _b	3.85	4.20	3.73 _b	3.89	3.94	3.76	3.73 _a	4.09	3.55
	자주	3.76 _b	4.13	3.69 _{ab}	3.86	3.88	3.80 _{ab}	3.69	4.33	3.61	3.99 _b	4.06	3.80
	F값	***	n,s	**	n,s	n,s	*	n,s	n,s	n,s	†	n,s	n,s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Scheffe 검정에 따른 다중비교를 실시함.

가사 및 돌봄 지원이 거의 없는 그룹보다 자주 있는 그룹이 결혼 생활 만족도가 높지만, 자주 있는 그룹보다는 가끔 있는 그룹의 결혼 생활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반면, 부인 부모로부터의 가사 및 돌봄 지원 빈도가 높은 그룹에서 여성의 결혼 생활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일본에 대해서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부인 부모로부터의 경제적 지원이 거의 없는 그룹에서 결혼 생활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별 분석에서 남편 부모로부터의 경제적 지원 빈도가 거의 없는 그룹의 남성이 결혼 생활 만족도가 높음이 확인되었고 이는 유의수준 10%에서 유의한 결과였다.

기혼 자녀의 결혼 생활 만족도의 차이를 가져오는 요인으로 한국 남성과 일본 남성 모두 자신의 부모로부터의 경제적 지원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자신의 부모로부터의 경제적 지원이 많을 때 한국 남성의 결혼 생활 만족도는 높은 반면 자신의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이 없는 때 일본 남성의 결혼 생활 만족도가 높다는 점은 한국과 일본의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

3) 기혼 자녀와 부모 간 지원 빈도가 기혼 자녀의 결혼 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표 15〉에는 기혼 자녀 관련 요인 및 부모 관련 요인을 통제한 후 기혼 자녀와 부모 간의 지원 빈도가 기혼 자녀의 결혼 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표 13〉의 분산분석 결과에서 남편 부모 및 부인 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 빈도가 높은 그룹이 결혼 생활 만족도가 높았던 한국은 다중 회귀분석 결과, 기혼 자녀와 부모 간 지원에 관련한 변수는 결혼 생활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모 관련 요인 중 남편 부친의 거주 상황 및 남편 모친의 거주 상황이 주목할 만한 결과를 보였다. 남편 부친이 배우자와 둘이서 혹은 혼자서 생활할 경우 본인 이외의 다른 자녀와 동거할 경우보다 기혼 자녀의 결혼 생활 만족도는 낮은 반면, 남편 모친이 배우자와 둘이서 혹은 혼자서 생활할 경우 기혼 자녀의 결혼 생활 만족도는 높았다. 일본은 남편 부모에 대한 가사 및 돌봄 지원이 전혀 없는 경우 가끔 혹은 자주 있는 경우에 비해서 기혼 자녀의 결혼 생활 만

〈표 15〉 부모와 자녀 간 지원이 기혼 자녀의 결혼 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		일본	
	B	β	B	β
【기혼 자녀 관련 요인】				
성별(ref: 남성)	.217	.130 †	.364	.193 *
남편 연령(ref: 40대)				
20대	.643	.169	.075	.028
30대	.267	.156	.105	.055
50대(60세 포함)	.705	.153	-.132	-.030
부인 연령(ref: 40대)				
20대	.531	.229 †	.600	.231
30대	.215	.125	.400	.209
50대(60세 포함)	-.786	-.100	.348	.056
남편 수입 (ref: 350만원 이하/ 550만엔 미만)				
200만원 이하/350만엔 미만	.010	.006	-.395	-.192 †
351만원 이상/750만엔 미만	.373	.197 *	.175	.079
-/750만엔 이상	—	—	.246	.093
부인 수입 (ref: 151만원 이상/ 150만엔 이상)				
수입없음	1.665	.787 *	-.397	-.210
150만원 이하/150만엔 미만	-.162	-.821 *	-.196	-.097
맞벌이 유무(ref: 맞벌이 이외)	1.785	1.060 *	-.355	-.187
남편의 출생 순위(ref: 장남 이외)	-.154	-.088	-.181	-.096
부인의 출생 순위(ref: 장녀 이외)	-.265	-.148 †	.206	.108
남편의 형제자매 유무(ref: 형제자매 있음)	.645	.100	-.370	-.083
부인의 형제자매 유무(ref: 형제자매 있음)	-.299	-.038	-.475	-.088
【부모 관련 요인】				
부모의 취업 형태(ref: 양친 모두 취업 이외)	-.297	-.153 †	-.413	-.211 *
남편 부친의 건강 상태	.154	.206	.178	.194
남편 모친의 건강 상태	.004	.005	.038	.041
부인 부친의 건강 상태	-.028	-.039	-.063	-.061
부인 모친의 건강 상태	.012	.016	.004	.004
남편 부친 거주 상황(ref: 기혼/미혼 자녀와 동거)	-2.834	-1.409 **	-.431	-.217
남편 모친 거주 상황(ref: 기혼/미혼 자녀와 동거)	2.752	1.381 **	.479	.240
부인 부친 거주 상황(ref: 기혼/미혼 자녀와 동거)	-.837	-.477	.998	.491
부인 모친 거주 상황(ref: 기혼/미혼 자녀와 동거)	.906	.520	-.713	-.353
【부모에 대한 기혼 자녀의 지원】				
남편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ref: 가끔 혹은 자주 있음)	-.099	-.029	-.154	-.080
부인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ref: 가끔 혹은 자주 있음)	-.456	-.132	.108	.057
남편부모에 대한 가사 및 돌봄 지원(ref: 가끔 혹은 자주 있음)	-.281	-.088	.387	.204 †
부인부모에 대한 가사 및 돌봄 지원(ref: 가끔 혹은 자주 있음)	.027	.011	-.365	-.192
【기혼 자녀에 대한 부모의 지원】				
남편부모로부터 받은 경제적 지원(ref: 가끔 혹은 자주 있음)	-.051	-.027	.075	.037
부인부모로부터 받은 경제적 지원(ref: 가끔 혹은 자주 있음)	.140	.076	.437	.215 †
남편부모로부터 받은 가사 및 돌봄 지원(ref: 가끔 혹은 자주 있음)	-.032	-.018	.110	.057
부인부모로부터 받은 가사 및 돌봄 지원(ref: 가끔 혹은 자주 있음)	-.008	-.004	-.165	-.084
Constants	3.013	-	3.067	-
F	1.90**		1.74*	
R ²	.300		.391	
Adjusted R ²	.142		.166	
N	180		127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족도가 높았다. 또한, 부인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이 전혀 없는 경우에 기혼 자녀의 결혼 생활 만족도가 높았으며 이러한 결과는 <표 14>에 제시한 분산분석 결과와 일치한다.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기혼 자녀와 부모의 지원을 남편 부모와의 관계 및 부인 부모와의 관계로 나누어서 기혼 자녀의 부모에 대한 지원 및 부모의 기혼 자녀에 대한 지원과 기혼 자녀의 결혼 생활 만족도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EASS2006의 데이터 중 한국 및 일본 자료를 이용해 유배우자 상태이면서 자신의 부모와 배우자의 부모 중 적어도 한 명은 생존해 있으며 부모와 동거하고 있지 않은 60세 이하의 응답자(한국의 경우 548명(남성 229명, 여성 319명), 일본의 경우 469명(남성 220명, 여성 249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몇 가지 논의를 하고자 한다.

첫째, 기혼 자녀의 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 빈도는 한국 남성과 일본 여성의 결혼 생활 만족도의 차이를 가져오는 요인이었다. 한국 남성에서는 자신의 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부인 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결혼 생활 만족도와 관계가 있었는데 부인 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 빈도가 높을 때 한국 남성의 결혼 생활 만족도는 가장 높았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육아 등을 부인 부모로부터 제공받는 사위의 입장에서 돌봄 노동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넉넉하게 할 수 있을 때 부인과 갈등의 소지가 줄어드는 현실의 반영이라고 추론해 볼 수 있다. 조부모가 손자녀의 육아를 담당하는 사례가 일본에도 있기는 하지만 한국에 비해서 조부모가 담당하는 돌봄 범위가 제한적이며 돌봄 노동에 대한 경제 자원 교환이 보편적이지 않음을 감안하면

지극히 한국적인 특성을 나타낸 결과로 보인다.

둘째, 기혼 자녀의 결혼 생활 만족도의 차이를 가져오는 요인 중 하나가 한국 남성과 일본 남성 모두 자신의 부모로부터 받는 경제적 지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부모로부터의 경제적 지원이 많을 때 한국 남성의 결혼 생활 만족도는 높은 반면 자신의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이 없을 때 일본 남성의 결혼 생활 만족도가 높다는 점은 한국과 일본의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이었다. 이는 한국 남성의 자신의 부모와 배우자의 부모에 대한 경제적 부양 의식이 한국 여성, 일본 남성 및 일본 여성에 비해 높은 편인 점(李秀眞, 2010)에 비추어 볼 때 자신들의 형편에서 가능한 한 지원을 제공하고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지원은 받아들이고자 하는 현실적인 생각이 뒷받침된 결과로 보인다.

셋째, 한국 여성에서는 남편 부모로부터의 경제적 지원 빈도와 결혼 생활 만족도는 정적 관계를 보였다. 즉, 남편 부모로부터의 경제적 지원 빈도가 높을 때 여성의 결혼 생활 만족도도 높았다. 반면, 자신의 부모로부터의 경제적 지원 빈도에 관해서는 가끔씩 경제적 지원이 이루어질 때 여성의 결혼 생활 만족도가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따라서 남편 부모로부터의 경제적 지원을 받는 것과 자신의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는 것은 여성의 입장에서 의미가 다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넷째, 기혼 자녀와 부모 간의 지원 빈도 유형이 기혼 자녀의 결혼 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일본은 기혼 자녀와 부모 사이의 지원 여부에 의해 결혼 생활 만족도 수준이 결정됨을 의미하는 결과가 얻어졌다. 반면, 한국에서는 기혼 자녀와 부모 간의 지원 그 자체보다는 남편 부친 및 남편 모친의 거주 상황이 기혼 자녀의 결혼 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의 부친이 배우자와 둘이서 혹은 혼자서 생활할 경우에 남편 부친을 부양하게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혼 자녀의 결혼 생활 만족도를 낮추는

반면, 남편의 모친이 배우자와 둘이서 혹은 혼자서 생활할 경우에는 가사 및 돌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혼 자녀의 결혼 생활 만족도를 높이는 것으로 보인다. 즉 남편 부모의 거주 상황과 같이 부모에 대한 부양이 일어날 가능성 혹은 돌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기혼 자녀의 결혼 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한국에서는 자녀의 부모에 대한 부양과 부모 자녀 간의 돌봄 지원을 주고받는 것이 일본에 비해서 보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가족 문화가 반영된 결과라고 해석 가능하다.

결혼을 가족과 가족의 결합으로 여기는 공통점이 있는 한국과 일본의 문화에서는 배우자 가족과의 관계에 관련한 의식이 매우 유사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그러나 이런 예상과는 달리 기혼 자녀와 부모와의 지원에 따른 기혼 자녀의 결혼 생활 만족도의 차이는 한국과 일본 양국이 상당히 다른 측면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에서 밝혀진 한국과 일본의 차이를 가져 온 요인을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한국과 일본의 차이는 노인 부양의 책임을 지는 주체를 가족에서 사회로 전환하는 정책을 추진해 온 일본과 가족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해 온 한국의 정책 시행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경제적 지원, 가사 및 돌봄 지원 두 영역 모두 기혼 자녀의 부모에 대한 지원 빈도가 높은 반면, 일본은 기혼 자녀의 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부모의 기혼 자녀에 대한 가사 및 돌봄 지원이 전혀 없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한국의 통계청이 공개한 2016년 사회조사 결과(통계청 보도 자료, 2016)를 보면 부모 부양 책임은 '가족'에게 있다는 응답이 2008년에는 40.7%, 2010년에는 36.0%, 2012년에는 33.2%, 2016년에는 30.8%로 해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반면 '가족과 정부·사회'가 함께 돌봐야 한다는 응답은 2008년에는 43.6%였던 것이 2016년에는 45.5%로 증가하였다. 이런 의식의 변화가 있음에도 일본과 차이가 있는 것은 부모 부양 규범

이 일본에 비해 강하게 남아 있으며 기혼 자녀와 부모와의 지원을 가족 간의 친밀도의 표현과 동일시하는 한국 사회의 특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고령자 복지의 가족 의존적 규범은 다소 완화된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는 가족 의존의 비율이 높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사회보장 제도의 정비가 충분하다고는 보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기혼 자녀의 부부 관계를 논할 때 부모와 관련된 요소가 중요한 예측 요소가 된다는 점을 실증 분석을 통해 밝혀냈다. 이는 고령자 복지 정책 방향을 고민할 때 고령자 복지 정책이 고령자의 생활뿐만 아니라 경제적 지원, 가사 및 돌봄 지원을 제공하고 제공받는 관계에 있는 기혼 자녀의 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한국과 일본의 차이는 가족 구성원의 관계 맺음과 가족 구성원 간의 적정한 거리에 관한 인식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남편 부모로부터의 가사 및 돌봄 지원 빈도별로 한국 여성의 결혼 생활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데 구체적으로 남편 부모로부터 가사 및 돌봄 지원이 거의 없는 것보다 자주 있는 편이 결혼 생활 만족도가 높지만, 자주 있을 때보다는 가끔씩 있을 때가 결혼 생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여성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은 한국 사회의 부모 자녀 관계에 시사점을 준다.

즉 배우자의 부모로부터 가사 및 돌봄 지원이 많으면 그만큼 대면접촉의 횟수도 많아질 것이며, 자연스럽게 자녀 세대의 생활 습관 등에 관여하게 될 가능성도 많아질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지원 제공자인 부모가 지원을 제공하는 것과 자녀의 가족생활에 개입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가족 구성원들끼리 겪는 크고 작은 일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가족이니까', '가족이잖아'로 설명하는 경향이 강한 한국 가족에서 시부모와 며느리의 적정한 거리 유지의 어려움

을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일본의 시부모와 며느리의 관계는 예를 들어 근거리에서 살고 있어도 아들 내외가 사는 방식에 나서서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이다. 가깝지도 않고 멀지도 않은 관계 혹은 떨어져 있어도 친밀한 관계를 추구하는 일본의 가족 관계 규범은 가족이니까 라는 규범이 강한 데에서 오는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는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기혼 자녀와 남편 부모의 자원 교환의 횟수, 기혼 자녀와 부인 부모의 자원 교환의 횟수가 기혼 자녀의 결혼 생활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혼 자녀의 남편 부모와 부인 부모에 대한 지원 및 남편 부모 및 부인 부모의 기혼 자녀에 대한 지원이 얼마나 자주 있었는지를 5점 척도로 측정된 데이터의 한계점이라고 볼 수 있다. 후속 연구에서 데이터상의 제한점을 해소하고 가족 가치관의 변화를 반영한 최신 자료를 이용한 분석이 추가된다면 한국 가족의 특성이 시대적으로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밝혀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1) 고선강(2012). 부모의 결혼자금 지원과 경제자원 이전: 20-40대 기혼여성 가정을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6(3), 1-19.
- 2) 고선강(2014). 중년층의 소득계층별 세대간 경제자원 이전, 노후생활비 준비와 생활만족도.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8(3), 79-101.
- 3) 김영순 · 고선강(2014). 중년기 부모와 기혼 자녀 간 상호 자원이전: 경제적 자원과 도구적 자원을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8(2), 143-162.
- 4) 김정석 · 김익기(2000). 세대 간 지원 교환의 형태와 노인들의 생활만족도. 한국노년학, 20(2), 155-168.
- 5) 김정석 · 조윤주(2012). 일본 기혼 여성들과 친정 부모간의 세대관계: 동거여부 및 대화 빈도를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35(2), 55-72.
- 6) 김정석 · 최형주(2011). 노년부부가구 남편과 부인의 부부관계 만족도. 한국인구학, 34(2), 1-15.
- 7) 김주희(2009). 결혼 초기 여성의 친족관계: 외동딸에 대한 사례연구. 가족과 문화, 21(4), 95-118.
- 8) 윤숙현(2003). 노부모와 자녀간의 지원 교환이 노인의 심리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23(3), 15-28.
- 9) 윤원아(2010). 배우자 간 의사결정력에 따른 노부모의 시간 자원 이전. 대한가정 학회지, 48(4), 83-102.
- 10) 이주리(2012). 부모의 수용-거부가 부부의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 자기-상대 방 효과 모델(APIM)의 적용.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0(4), 1-11.
- 11) 임효연(2009). 일본 대도시 독거 노인의 자녀와의 지원 교환 형태에 따른 생활 만족도. 대한가정학회지, 47(5), 59-66.
- 12) 전세송 · 김수경(2011). 장모-사위 간 관계 변인이 사위의 관계 만족도 및 부정적 지각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9(7), 123-133.
- 13) 전세송 · 전귀연(2014). 장모가 지각한 장모-사위 관계만족도 연구. 가족과 문화, 26(1), 152-177.
- 14) 조성례(2013). 기혼 여성의 부모부양부담감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한세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15) 통계청 보도 자료(2016). 2016년 사회조사 결과(가족 · 교육 · 보건 · 안전 · 환경).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2/6/3/index.board?
- 16) 통계청 보도 자료(2017). 2016년 생명표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2/1/index.board?
- 17) 파이낸셜 뉴스(2014). 부모품 못 떠나는 자식들 노부모 동거자녀 절반 ‘캥거루족.’ 2014. 8. 22. 26면.
- 18) 한광희(2010). 부부역할수행과 생활만족도.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9) 한경혜 · 김상욱(2010). 세대 간 지원 교환 설명

- 요인에 있어서의 부계와 모계의 비교. 한국사회학, 44(4), 1-31.
- 20) 한경혜 · 윤성은(2004). 한국가족 친족관계의 양계화 경향: 세대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27(2), 177-203.
- 21) 한경혜 · 이정화(2000). 농촌 지역 며느리의 부양 의식이 부양 부담에 미치는 영향: 출생순위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20(1), 169-182.
- 22) 한경혜 · 홍진국(2000). 세대 간 사회적 지원의 교환과 노인의 심리적 복지. 가족과 문화, 12(2), 55-80.
- 23) 한민아 · 한경혜(2004). 세대 간 지원 교환 유형과 성인 자녀의 심리적 복지감. 한국 가족관계학회지, 9(1), 135-152.
- 24) 한은주 · 김태현(1994). 가족주의 가치관에 따른 부양 만족도와 부양 부담도. 한국노년학, 14(1), 95-116.
- 25) Bengtson, V. L.(2001). Beyond the nuclear family: The increasing importance of multigenerational bond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3, 1-16.
- 26) Chesley, N. & Poppie, K.(2009). Assisting Parents and In-Laws: Gender, Type of assistance, and Couples' Employment. Journal of Marriage & Family, 71(2), 247-262.
- 27) Lin, I. F., Goldman, N., Weinstein, M., Lin, Y. H., Gorrindo, T. & Seeman, T.(2003). Gender Differences in Adult Children's Support of Their Parents in Taiwan. Journal of Marriage & Family, 65(1), 184-200.
- 28) Lee, E. J., Spitze, G. & Logan, J. R.(2003). Social Support to Parents-in-Law: The Interplay of Gender and Kin Hierarchies. Journal of Marriage & Family, 65(2), 396-403.
- 29) Lee, G. R., Netzer, J. K., & Coward, R. T. (1995). Depression Among Older Parents: The Role of Intergenerational Exchang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7, 823-833.
- 30) Sarkisian, N. & Gerstel, N.(2004). Explaining the Gender Gap in Help to Parents: The Importance of Employment. Journal of Marriage & Family, 66(2), 431-451.
- 31) Yang, H.(1996). The Distributive Norm of Monetary Support to Older Parents: A Look at a Township in China.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8, 404-415.
- 32) 李秀眞(2012). 親への支援に対する規範意識と世代間支援における男女差-EASS2006データを用いた日韓比較. 日本版総合的社会調査共同研究拠点研究論文集, 12(9), 55-67.
- 33) 岩井紀子 · 保田時男(2008). 世代間援助における夫側と妻側のバランスについての分析—世代間関係の双系化論に対する実証的なアプローチ. 家族社会学研究, 20(2), 34-47.
- 34) 岩井紀子 · 保田時男(2009). データで見る東アジアの家族観—東アジア社会調査による日韓中台の比較 京都ナカニシヤ出版
- 35) 厚生労働省(2017). 平成 28 年簡易生命表の概況 <http://www.mhlw.go.jp/toukei/saikin/hw/life/life16/dl/life16-15.pdf>.
- 36) 穴戸邦章(2008). 実親・義親への世代間援助こみる「家」の原理. 日本版General Social Surveys 研究論文集, 7(4), 1-12.
- 37) 施利平(2008). 戦後日本の親子・親族関係の持続と変化—全国家族調査(NFRJ-S01)を用いた計量分析による双系化説の検討—. 家族社会学研究, 20(2), 20-33.
- 38) 白波瀬佐和子(2005). ‘少子高齢社会の世代間支援. 少子高齢社会のみえない格差—ジェンダー・世代・階層のゆくえ—. 東京: 東京大学出版会, 135-160.
- 39) 田淵六郎(2011). 世代間居住関係の変容と規定 要因—NFRJ08・03・08の比較を通じて—. 第3回家族こつての全国調査(NFRJ08)第2次報告書 第2巻世代間関係の動態 日本家族社会学会全国家族調査委員会, 1-14.
- 40) 千年よしみ(2013). 近年における世代間居住関係の変化. 人口問題研究, 69(4), 4-24.

- 41) 張英恩·嚴基郁·金貞淑·尹靖水·中島和夫 (2009). 韓国高齢者の介護における息子の嫁の介護ストレス認知とQOLの関係. 東アジア研究, 52, 97-106.
- 42) 毎日新聞(2008). <仕事と家族調査>既婚者6割「すねかじり」50代も半数. 2008. 3. 18.
- 43) 宮本みち子·岩上真珠·山田昌弘(1997). 未婚化社会の親子関係. 東京: 有斐閣.

- 투 고 일 : 2017년 12월 01일
- 심 사 일 : 2018년 01월 01일
- 게재 확정일 : 2018년 02월 20일